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양보경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양 고지도 속의 제주
- 파인드코리아 웹사이트 상의
고지도를 중심으로 -

201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김 지 은

서양 고지도 속의 제주
- 파인드코리아 웹사이트 상의
고지도를 중심으로 -

양보경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김 지 은

인 준 서

김지은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⑩

심사위원 _____ ⑩

심사위원 _____ ⑩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 문 개 요

서양 고지도의 발달 과정 속에서 제주는 한반도와 함께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지명과 위치 및 형태에 있어 다양하고 분명한 변화를 보이며 점차 정확하게 묘사되어 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양 고지도를 분석하여 그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제주 지명의 시대별 변천 과정을 정리하고, 제주의 위치 및 형태 변화를 유형화하여 체계적으로 살펴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서양 고지도 속에 표현된 제주의 지명·위치·형태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을만한 서양과 제주의 특별한 지리적 만남을 살펴보았다. 이어 서양 고지도에 나타나는 다양한 제주 지명 표기의 변천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파인드코리아(www.findcorea.com) 웹사이트 상의 서양 고지도를 대상으로 지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서양 고지도 속 제주의 위치 및 형태 변화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유형을 도출해내고 분류한 후 이를 기준으로 지도의 시대별 분석을 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자료는 파인드코리아 웹사이트 상의 1522년에서 1935년 사이에 서양에서 제작된 고지도 983점이다. 일차적으로 파인드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이들 지도의 기본 정보를 검토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후 연구에 필요한 추가적인 항목을 설정하여 조사하였다. 이 자료들을 Microsoft사의 Excel 2007을 이용해 목록화하여 지도 분석을 실시했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양 고지도 속 제주 지명의 시대별 변천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기존 연구를 통해 밝혀진 다양한 제주 지명을 유형화하여 지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도둑들의 섬이라는 뜻을 가진 ‘Ladrones’ 계열의 지명은 ‘L형’, 바람과 말의 섬이라는 의미의 ‘Fungma’ 계열의 지명은 ‘F형’, 『하멜표류기』의 출간으로 널리 알려진 네덜란드 선박의 이름을 딴 ‘Quelpaert’ 계열의 지명은 ‘Q형’으로 하였다. 그리고 제주의 주요 지명을 섬의 이름으로 표기한 경우는 ‘N형’으로 분류하였다. 기타로 하나의 섬에 두 가지 이름이 표기된 경우는 ‘병기형’, 풍마와 켈파트가 서로 다른 별개의 섬으로 인식되어 나타나는 경우는 ‘병존형’이라 하였다. 간혹 하나의 섬에 두 가지 이름이 표기되고, 제주를 가리키는 또 다른 섬이 있을 경우에는 ‘병존 & 병기형’으로 분류하였다(표 1 참조).

분석 결과, 서양 고지도 발달 과정 속에서 제주는 16세기 후반에 등장하여 L형으로 표기되다가 17세기 중반 마르티니의 지도를 계기로 F형 표기로 대체된다. 곧이어 『하멜표류기』 출간으로 서양에서 제주도가 켈파트로 널리 알려지면서 Q형 표기가 등장하고 18세기 지도에서는 풍마와 켈파트가 서로 다른 섬으로 인식되는 지리적 혼란이 야기되면서 F형과 Q형이 병존한다. 그러던 중 1787년 라페루즈(Jean-François de Galaup, comte de La Perouse)에 의해 최초로 우리나라의 남해안과 동해안에 대한 지리적 탐사가 이루어지고 이때 과학적이고 정밀한 제주 남부 해안의 지도가 제작된다. 이로부터 차츰 제주의 해안선이 정확하게 표현되기 시작하였고, 이어 1816년 맥스웰(Murrey Maxwell)과 홀(B. Hall), 1845년 벨처(Edward Belcher) 등에 의해 제주가 과학적이고 세밀한 방법으로 측량되기 시작하면서 19세기에 F

형은 자취를 감추고 Q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위치 및 형태의 경우 연구대상 지도를 수차례 살펴본 결과 몇 가지 유형을 도출해낼 수 있었고 이를 일차적으로 위치의 정확도에 따라 A, B, C 유형으로 분류한 후 필요에 따라 2차, 3차 분류까지 시도하여 시대별 지도 분석을 하였다(표 2 참조).

그 결과, 16세기 후반 서양 고지도에는 A-1 유형이 대표적으로, 제주에 대한 막연한 인식으로부터 매우 부정확한 형태로 출현하였다. 그러다가 17세기에는 A-1보다는 제주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진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위치 및 형태는 부정확한 A-2 유형으로 표현된다. 18세기가 되면 B형 지도가 주류를 이루며 풍마와 켈파트 사이의 지리적 혼동이 보이는데 A-4, B-2-1, B-2-2 순으로 점차 오류가 시정되며 정확성을 띠어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세기에 오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주에 대한 본격적인 탐사가 행해짐으로써 제주도가 현대 지도에 가깝게 정확하고 상세하게 나타나는 C형 지도가 대다수를 이루게 된다.

본 연구는 서양 고지도에 나타나는 제주의 지명과 위치 및 형태의 변천 과정을 시대별로 대해 살펴보았다. 이는 제주도의 역사적 정체성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기초적인 고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파인드코리아 웹사이트 상의 서양 고지도 약 1000점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주요 지도는 물론이고 서양 고지도의 거의 대부분을 분석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연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이렇게 방대한 양의 자료를 살펴봄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모두 제주의 지명 표기 및 유형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던 데 반해 표기 및 유형을

시대별로 정리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한편 지금껏 행해지지 않았던 제주도의 위치 및 형태를 유형화하여 실증적 분석을 하였고, 위치 및 형태 변화에 관해 시대적 흐름까지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는 점에 이 연구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표 1. 서양 고지도 속에 나타나는 제주 지명의 유형화

유형	대표적인 지명
L형	Ladrones
F형	Fungma
Q형	Quelpaert
N형	Kitcheou
병기형	Fungma ou Quelpaert
병존형	Fungma, Quelpaert
병존&병기형	Tsitcheou ou Fungma, Quelpaert

※ 주

- L형 : 포르투갈어로 ‘Ladrones’ 계열의 표기, 도둑들의 섬이라는 의미
- F형 : 바람과 말의 섬이라는 뜻의 ‘Fungma’ 계열의 표기
- Q형 : 네덜란드 선박의 이름을 딴 것으로 추정되는 ‘Quelpaert’ 계열의 표기
- N형 : 제주, 대정, 정의 등 조선에서 사용하던 제주 지명을 음차한 표기
- 병기형 : 하나의 섬에 제주를 가리키는 두 개의 지명을 사용, ‘○○ 또는 △△’ 로 표기
- 병존형 : 두 개의 섬에 각각 제주를 가리키는 지명이 표기된 경우
- 병존&병기형 : 병존형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섬에 각각 제주를 가리키는 지명이 표기된 경우
우이나 이 중 하나의 섬에 두 가지의 지명이 병기되는 경우

표 2. 제주도 위치 및 형태의 유형화 및 분류

	1차 분류	2차 분류	3차 분류
부 정 확	A	A-1	
		A-2	A-2-1
			A-2-2
		A-3	A-3-1
			A-3-2
부 정 확	B	A-4	
		B-1	
		B-2	B-2-1
			B-2-2
정 확	C	B-3	
		세부유형 없음	

※ 주

- A : 부정확한 형태, 제주도가 하나의 섬으로만 나타남
 - A-1 : 작고 둥근 섬, 매우 부정확한 형태
 - A-2 : 매우 크고 길쭉한 섬
 - A-2-1 : 사선형, 주변에 여러 작은 섬이 있음
 - A-2-2 : 일자형, 주변에 다른 섬은 거의 없음
 - A-3 : 작고 둥근 섬, 남해안의 중앙부에 그려짐
 - A-3-1 : 한반도에 매우 가깝게 그려짐
 - A-3-2 : 한반도에서 너무 멀리 떨어짐
 - A-4 : 남해안의 서남쪽에 위치, 작은 삼각형의 섬
- B : 부정확한 형태, 제주도가 두 개의 섬으로 그려짐
 - B-1 : 풍마 표기 섬은 남해안 서남쪽, 한반도에 매우 가깝게 위치하고 켈파트 표기 섬은 남해안 중앙부, 한반도에서는 조금 멀리 떨어져 위치함. 풍마와 켈파트가 거의 비슷한 크기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임
 - B-2 : 위치는 B-1과 다를 바 없음, 다만 풍마는 크기가 작은 삼각형으로 그려지는 반면 켈파트는 이보다 다소 크면서 세로로 길쭉한 마름모꼴로 표현됨
 - B-2-1 : 켈파트 위에 여러 작은 섬이 표현됨.
 - B-2-2 : 켈파트 주변에 2~3개의 섬 정도만이 그려짐
 - B-3 : 위의 B형들과는 달리 전형적인 위치를 나타내지 않고, 두 섬이 위도 상 비슷하게 나타남. 두 섬의 크기와 형태 또한 별다를 것이 없음
- C : 제주가 현대 지도에 거의 가깝게 비교적 정확한 위치, 형태를 나타냄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II. 서양인과 제주의 지리적 만남	6
1. 벨테브레(Jan Janse Weltevreë)의 표착	6
2. 하멜(Hendrik Hamel) 표류기	9
3. 벨처(Edward Belcher)의 사마랑(Samarang)호	12
4. 겐테(Siegfried Genthe)의 여행기	18
III. 서양 고지도에 나타나는 제주 지명의 변천	21
1. 서양 고지도 속의 다양한 제주 지명	21
2. 제주 지명의 시대별 변천 과정	23
1) 16세기	23
2) 17세기	27
3) 18세기	32
4) 19세기	39

3. 종합 고찰	42
IV. 서양 고지도 속 제주의 위치 및 형태 변화	44
1. 서양 고지도에 나타나는 제주의 위치 및 형태	44
2. 시대별 제주의 위치 및 형태 변화	61
1) 16세기	61
2) 17세기	64
3) 18세기	67
4) 19세기	74
3. 종합 고찰	77
V. 결론	80

참 고 문 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서양 고지도 속에 나타나는 제주 지명의 유형화	22
표 2. 파인드코리아 웹사이트 상 서양 고지도의 시대별 비율	23
표 3. 전체 983점 중 제주가 표현되지 않은 지도의 비율	24
표 4. 제주도 위치 및 형태의 유형화 및 분류	45
표 5. 16세기 지도에서의 제주도 위치 및 형태의 유형	62
표 6. 17세기 지도에서의 제주도 위치 및 형태의 유형	65
표 7. 18세기 지도에서의 제주도 위치 및 형태의 유형	69
표 8. 19세기 지도에서의 제주도 위치 및 형태의 유형	75

그 립 목 차

그림 1. 벨처가 작성한 해도, 《Chart of the Northern Seas of China and Japan Including the discoveries of H. M. S. SAMARANG》, Edward Belcher, 1848.	17
그림 2. 16세기 지도에 나타나는 제주 지명 표기 유형	25
그림 3. 제주가 L형으로 표기된 지도, 《Iaponiae Insulae Descriptio》, Abraham Ortelius & Luis Teixeira, 1595.	27
그림 4. 17세기 지도에 나타나는 제주 지명 표기 유형	28
그림 5. 17세기 지도 중 1655년 전후로 나타나는 F형과 L형 표기 비율	29
그림 6. 제주가 Q형으로 표기된 지도, 《L'Asie》, P. Duval, 1676.	30
그림 7. 《곤여만국전도》, Matteo Ricci, 1602.	31
그림 8. 18세기 지도에 나타나는 제주 지명의 유형별 비율	32
그림 9. 풍마와 켈파트가 다른 섬으로 인식된 F&Q형의 지도, 《Die Obere O der Nordliche Halbkugel der Erde auf den Horizont von Wien, Stereographisch entworfen von》, ECKER, J. A. / BENEDICTI, H. / SHALBACHER, P. J. 1800.	33
그림 10. ‘Mogan’ 표기 지도, 《La Partie Orientale De L'Asie》, Nicholas De Fer, 1705.	35
그림 11. 제주가 N&Q형으로 표기된 지도, 《Carte Du Japon et de la Core e》, Crepy, 1743.	36
그림 12. 제주가 N형으로 표기된 지도, 《LA CHINE AVEC LA KOREE ET LES PARTIES DE LA TARTARIE LES, BELLIN, Jacques-Nicolas》, 1	

750.	37
그림 13. F+Q형 지도, 《Carte Des Indes et De La Chine》, DE L'ISLE, Guillaume, 1705.	38
그림 14. (N+F)&Q형의 지도, 《Carte D'Asie》, DE L'ISLE, Guillaume, 1788.	38
그림 15. 19세기 지도에 나타나는 제주 지명의 유형별 비율	39
그림 16. 프랑스 정부가 제작한 제주도 지도, 《Quelpaert》, French Government Geological Dept., 1904.	40
그림 17. 'Mouse' 표기가 나타난 지도, 《Stanford's Map of Eastern China, Japan and Korea》, Standford, Edward, 1904.	41
그림 18. A-1형의 제주도 위치 및 형태	46
그림 19. A-2-1형의 제주도 위치 및 형태	47
그림 20. A-2-2형의 제주도 위치 및 형태	48
그림 21. A-3-1형의 제주도 위치 및 형태	49
그림 22. A-3-1형의 지도, 《L'Asie.. Par Sanson.. Revue par Robert》, Didier Robert de Vaugondy, 1730. (상), 《CARTE DES ISLES DU JAPON ET LA PRESQU ISLE DE COREE Avec 》, Jacque Nicolas Bellin, 1746. (하).	50
그림 23. A-3-2형의 제주도 위치 및 형태	51
그림 24. A-3-2형의 지도, 《Carte Des Parties Nord et Est De L'Asie qui comprend Les Cotes》, M. de Vaugondy, 1772. (상), 《An Accurate Map of Russian Empire both in Europw And Asia》, Guthries, 1785. (하).	52
그림 25. A-4형의 제주도 위치 및 형태	53

그림 26. B-1형의 제주도 위치 및 형태	54
그림 27. B-1형의 지도, 《Asial with its Islands and different Regions, according to their Mordern division: also the discovey》, Jean Baptiste Bourguignon d' Anville, 1794. (상), 《Siberie ou Russie Asiatique, Tartarie Chinoise, Pays des Eluts et Isles de Japon》, Didier Robert de Vaugondy, 1778. (하).	55
그림 28. B-2-1형의 제주도 위치 및 형태	56
그림 29. B-2-2형의 제주도 위치 및 형태	57
그림 30. B-3형의 제주도 위치 및 형태	58
그림 31. B-3형의 지도 《L'ASIE divisee en ses principaux Etats ou pays par M. Brion de la Tour, ...》, M. Brion, 1784.	58
그림 32. C형의 제주도 위치 및 형태	59
그림 33. 16세기 지도에 나타나는 제주도 위치 및 형태의 유형	61
그림 34. 《Iaponiae Insulae Descriptio》, Abraham Ortelius & Luis Teixeira, 1595.	63
그림 35. 《IAPONIA》, MERCATOR, G, 1595.	63
그림 36. 17세기 지도에 나타나는 제주도 위치 및 형태의 유형	64
그림 37. A-2-1형의 지도, 《CHINA Veteribus SINARVM REGIO nunc Incolis TAME dicta》, HONDIUS, Jodocus & JANSSON, Jan, 1636. (상), 《IAPONIA REGNVM》, Blaeu, 1662. (하).	66
그림 38. A-2-2형의 지도, 《Il REGNO DELLA CHINA detto presentemente CATAY e MANGIN》, Cantelli, G, 1682. (상), 《ASIAE Recentissima Delineatio, Qua Status et Imperia Totius》, HOMANN, Johann Baptist, 1700. (하).	67

그림 39. 18세기 지도에 나타나는 제주도 위치 및 형태의 유형	68
그림 40. B-2-2형의 지도, 《L'EMPIRE DE LA CHINE》, Didier Robert de V augondy, 1751.	70
그림 41. B-2-1형의 지도, 《Karte von der Provinz Quantong oder Lyau-tong und dem KOENIGREICHE KAU-LI oder KOREA nach der englic》, Nicolas, 1750.	71
그림 42. A-4형의 지도, 《ROYAUME DE COREE》, D'Anville, J. B, 1737.	72
그림 43. 《PART OF THE ISLAND OF QUELPAERT》, De Galoup, J.-F., C omete de La Perouse, 1798.	73
그림 44. 19세기 지도에 나타나는 제주도 위치 및 형태의 유형	74
그림 45. C형의 지도, 《Chinese Empire and Japan》, Philip, George & Son, 1899. (상), 《JOHNSON'S CHINA and JAPAN》, Johnson, A. J. 1868. (하).	76
그림 46. 서양 고지도 속에 나타나는 제주의 위치 및 형태 변화 흐름도	79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서양에서 제작된 고지도에서 우리나라는 16세기 중반부터 등장한다. 처음에 우리나라는 매우 불분명한 형태로 나타났다. 둥그런 섬 형태, 혹은 사다리꼴 모양의 섬, 길쭉한 역삼각형의 섬 등으로 매우 과장되고 왜곡된 형태로 표현되었다. 심지어는 18세기 초반까지 섬으로 그려지기도 하였다. 이는 당시 서양인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막연한 인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이러한 시기에 제주로 추정되는 섬이 함께 그려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아마도 동양과 서양의 교류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당시에 제주는 동아시아 교역의 중심지로서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의 반영으로 제주는 조선이라는 미지의 나라와 동등하게 혹은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게 가치와 의미를 지니며 지도에 수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제주는 서양 고지도에서 우리나라가 등장하는 시점과 거의 때를 같이 하며 나타났고 초창기에는 ‘Ladrones’ 계열의 지명, 즉 ‘도둑들의 섬’으로 불리게 된다. 그러다가 16세기 중반 이후에는 ‘Fungma’ 계열의 지명, ‘바람과 말이 많은 섬’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표기되었다. 『하멜 표류기』가 출간된 이후에는 ‘Quelpaert’로도 널리 알려지는데, 이 때 풍마와 켈파트가 병기되기도 하고 둘을 서로 다른 섬으로 인식하여 따로 그리기도 하는 등 지리적 혼동의 시기가 나타난다. 한편 이 시기에는 ‘제주’, ‘대정’, ‘정의’ 등 제주 삼현의 주요 지명 표기가 등장하기도 한다.

19세기가 되면 혼란이 사라지고, 다시 켈파트로 정착하게 된다.

서양 고지도 속에서 제주가 그려지는 위치나 형태 및 크기 또한 지명의 변천과 함께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서남쪽 혹은 동남쪽에 그려지기도 하고, 중앙부에 그려지기도 하는가 하면 한반도와 꽤 멀리 떨어져 그려지기도 한다. 형태 역시 둥그런 섬 형태, 마름모꼴, 삼각형 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된다.

이렇듯 서양 고지도의 발달 과정 속에서 제주는 한반도와 함께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지명과 그 위치 및 형태에 있어 다양하고 분명한 변화를 보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박대헌(2001)¹⁾은 13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초기 사이에 전개된 우리나라와 서양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서양 지도상에 나타난 제주의 모습과 그 명칭의 변천 과정을 구명해 보았다. 오일환·김기수(2004)²⁾는 서양에서 발간된 고지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제주도 대한 형태 및 명칭 표기에 대한 변화를 역사적인 연원 속에서 살펴보았다. 한편 2003년에 경희대학교 혜정문화연구소에서는 ‘서양 고지도 속의 제주도’ 특별전시회를 개최한 바가 있다. 이 전시에서는 다양한 명칭으로 제주도가 표기된 서양 고지도 33점과 동해 표기 고지도 12점을 선보였다. 또한 같은 해 8월 국립제주박물관에서는 하멜 제주도 표착 350주년을 기념하여 ‘항해와 표류의 역사’ 특별전을 열고 250여점의 유물을 통해 서양에 비친 조선, 한국의 표류인과 표류 문물 등을 조명하였다.

그러나 이들 기존 연구는 모두 서양 고지도에서 제주가 어떠한 지명으로 나타났는지 그 명칭 표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

1) 박대헌, 2001, 「서양지도에 나타난 제주의 모습과 그 명칭에 관한 연구」, 제주도연구 제 19집, 제주학회, pp.119-167.

2) 오일환·김기수, 2004, 「18세기 서양고지도에 나타난 우리나라와 제주도」, 문화역사지리 Vol.16 No.1,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p.113-122.

구에서 밝혀진 서양 고지도 속 제주의 다양한 지명을 유형화하여 시대별로 정리하고 그 변천 과정을 알아볼 것이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행해지지 않았던 서양 고지도 속의 제주도 위치 및 형태 변화까지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서양인들의 제주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서양 고지도를 분석하여 그 속에 나타나는 제주 지명의 시대별 변천 과정을 정리하고 제주의 위치 및 형태 변화를 유형화하여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서양인과 제주의 지리적 만남’, ‘서양 고지도에 나타나는 제주 지명의 변천’, ‘서양 고지도 속 제주의 위치 및 형태 변화’의 세 가지 주제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전체적인 내용 및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서양 고지도 속에 나타나는 제주의 지명과 위치 및 형태가 변화하는 데 영향을 주었을만한 서양과 제주의 특별한 지리적 만남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사건들로 인한 서양인들의 제주에 대한 인식 변화와 이에 따른 서양에서의 제주에 대한 지리적 정보의 전달과정 등을 가늠해보았다.

둘째, 서양 고지도에 나타나는 다양한 제주 지명 표기의 변천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파인드코리아(www.findcorea.com) 웹사이트 상의 서양 고지도를 대상으로 하여 시대별 지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서양 고지도 속 제주의 위치 및 형태 변화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파인드코리아 웹사이트 상의 지도를 대상으로 하여 몇 가지 유형을 도출해내고 분류한 후 이를 기준으로 지도의 시대별 분석을 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자료는 파인드코리아 웹사이트 상의 1522년에서 1935년 사이에 서양에서 제작된 고지도 983점이다. 파인드코리아는 현재로서는 국내에서 서양 고지도를 가장 많이 수록하고 있는 웹사이트이다. 이 사이트에는 1500년에서 1950년 사이에 제작된 약 4000여점의 지도와 이미지, 지도의 제작자·제작연대·제작국가·소장상황 등 각종 정보가 실

려 있다. 이 중 아직 온라인상에 이미지가 제공되지 않는 지도와 중국이나 일본 등 동양에서 제작한 지도 등을 제외하고 983점의 지도를 선정하였다.

연구를 위해 일차적으로 파인드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이들 지도의 기본 정보를 검토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후 연구에 필요한 추가적인 항목을 설정하여 조사하였다.³⁾ 이 자료들을 Microsoft사의 Excel 2007을 이용해 목록화하여 지도 분석을 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힘들게 수집한 고지도 자료를 공개하고 지원해 주신 파인드코리아 김태진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3)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지도에 대한 기본 정보로서 지도명, 대상지역, 제작연도, 제작자, 제작국가, 크기, 색상, 발행처, 소유권, 소장처, 축척, 삽도, 지도의 표현 내용으로서 한국에 대한 인식, 국호, 국경선, 간도, 동해, 독도, 울릉도, 제주도, 대마도, 대한해협, 한반도 주변 섬, 한반도 내 지명 등이다.

II. 서양인과 제주의 지리적 만남

1. 벨테브레(Jan Janse Weltevree)의 표착

서양인과 제주의 첫 만남은 네덜란드인 벨테브레에 의해 이루어졌다.⁴⁾ 벨테브레는 1627년 네덜란드 연합동인도회사 소속 우베르케르크(Ouwerkerck)호를 타고 일본으로 항해하던 중 제주에 표착하였다. 그는 동료인 하이스베르츠(Drik Gijsbertsz), 베르바스트(Jan Pieterse Verbaest)와 함께 식수를 구하기 위해 상륙하였다가 관헌에 붙잡혀 서울로 압송되었다.

당시 조선은 임진왜란의 전란을 수습하기도 전에 북방에서 일어난 여진족이 정묘호란을 일으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뒤이어 1636년에는 병자호란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 벨테브레와 그의 동료들도 참전하였다. 이 전쟁에서 동료들은 모두 전사하고 벨테브레만이 살아남았다.

벨테브레는 조선인 박연(朴淵)으로 귀화하고, 조선인 여자와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었다. 급기야 1648년에는 과거에 급제하여 조선의 정식 무관이 되었다.⁵⁾ 박연은 훈련도감에 소속되어 조총을 만들고 화포를 개량하는 일에 힘썼다. 박연을 훈련도감에 배속시킨 이유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이후 청

4) 박연의 표착지는 제주, 경주, 호남 등으로 알려져 있으나 제주일 가능성이 높다. 호남은 제주를 포괄하는 지명이었고 경주에 표착하였다는 기록은 전해들은 말을 근거로 한 것이다. 제주 표착 기록은 무엇보다도 정재륜의 『한거만록 閑居漫錄』에서 찾을 수 있다. 그의 부친인 정태화가 하멜의 표착부터 하멜 일행에 대한 처리를 담당하고 있었고 탈출 후에도 영의정으로 그 대책을 논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제주와 관련된 기사를 수록하고 있는 김석익의 『탐라기년 耽羅紀年』에서도 박연에 관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국립제주박물관, 2003, 『항해와 표류의 역사』, 서울출판사. p. 171.)

5) 『인조실록』 인조 26년 무자(1648, 순치 5) 8월 25일(정사), "정시(庭試)를 설행하여 문과에 이정기(李廷夔) 등 9인을, 무과에 박연(朴淵) 등 94인을 뽑았다."

나라가 서양에서 들여온 홍이포(紅夷砲)의 위력을 알고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기 때문이었다. 1652년 박연은 마침내 홍이포 제작에 성공하였다. 또한 1657년에는 하멜 일행이 가지고 온 수석식총(燧石式銃)을 모방하여 제작하기도 하였다.⁶⁾

한편 박연은 하멜 일행의 통역을 맡기도 했었는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록이 『하멜 표류기』에도 남아 있다.

10월 29일 : 우리의 서기와 일등 조타수, 그리고 의무원이 목사에게 불려나갔다. 거기에서 그들은 목사 옆에 붉은 수염이 난 사람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목사는 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우리에게 물었다. 우리는 그가 홀란드 사람인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는 껄껄 웃으며 이 사람은 조선 사람이니 너희들이 잘못 보았다고 대답했다. ... 중략 ... 그는 덧붙여 말하기를, 그는 조선에 오랫동안 살면서 왕에게 일본으로 보내 달라고 부탁했지만 날개가 있어 날아가지 못할 바에는 기대하지 말라는 대답밖에는 듣지 못했다고 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나라에 표착한 외국인을 결코 본국으로 보내지 않는 것이 이 나라의 불변하는 관습이며, 그러나 그 밖의 다른 점에서는 대접이 훌륭하며 필요한 모든 물품을 공급받는다고 한다. ... 중략 ... 우리의 일행이 이 나라에 표착할 당시 그의 나이가 58세였는데 그가 모국어를 너무 잊어 처음 만났을 때는 의사소통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많았다는 점이 우리를 놀라게 했다.⁷⁾

6) 『효종실록』 효종 7년 병신(1656, 순치 13) 7월 18일(갑자), "새로운 체제의 조총(鳥銃)을 만들었다. 이보다 먼저 만인(蠻人)이 표류하여 와 그들에게서 조총을 얻었는데 그 체제가 매우 정교하므로 훈국(訓局)에 명하여 모방해서 만들도록 한 것이다."

7) H. 하멜 지음, 신복룡 역주, 2005, 『하멜 표류기』, 집문당. pp. 29~30.

이처럼 박연은 서양인으로서 최초로 제주와 만남을 가졌고, 이 후 조선인으로 귀화했고 조선의 병기 개발과 개량에 커다란 성과를 남기며 완벽한 조선인으로 변모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갔다.

2. 하멜(Hendrik Hamel) 표류기

박연에 이어, 1653년 하멜과 그 일행 36명이 제주에 표착하였다. 대만을 떠나 일본으로 향하던 네덜란드 연합동인도회사 소속 스페르웨어(Sperwer)호가 풍랑을 만나 난파된 것이다. 이에 대해 『효종실록』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원진(李元鎭)이 치계(馳啓)하기를,
“배 한 척이 고을 남쪽에서 깨져 해안에 닿았기에 대정현감(大靜縣監) 권극중(權克中)과 판관(判官) 노정(盧錠)을 시켜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보게 하였더니,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배가 바다가운데에서 뒤집혀 살아남은 자는 38인이며 말이 통하지 않고 문자도 다릅니다. 배 안에는 약재(藥材) · 녹비(鹿皮) 따위 물건을 많이 실었는데 목향(木香) 94포(包), 용뇌(龍腦) 4항(缸), 녹비 2만 7천이 있습니다. 파란 눈에 코가 높고 노란 머리에 수염이 짧았는데, 흑 구레나룻은 깎고 콧수염을 남긴 자도 있었습니다. 그 옷은 길어서 넓적다리까지 내려오고 옷자락이 넷으로 갈라졌으며 옷깃 옆과 소매 밑에 다 이어 묶는 끈이 있었으며 바지는 주름이 잡혀 치마 같았습니다. 왜어(倭語)를 아는 자를 시켜 묻기를 ‘너희는 서양의 크리스천[吉利是段]인가?’ 하니, 다들 ‘야야(耶耶)’ 하였고, 우리나라를 가리켜 물으니 고려(高麗)라 하고, 본도(本島)를 가리켜 물으니 오질도(吾叱島)라 하고, 중원(中原)을 가리켜 물으니 흑 대명(大明)이라고도 하고 대방(大邦)이라고도 하였으며, 서북(西北)을 가리켜 물으니 달단(韃靼)이라 하고, 정동(正東)을 가리켜 물으니 일본(日本)이라고도 하고

낭가삭기(郎可朔其)라고도 하였는데, 이어서 가려는 곳을 물으니 낭가삭기라 하였습니다.”

하였다. 이에 조정에서 서울로 올려 보내라고 명하였다. 전에 온 남만인(南蠻人) 박연(朴燕)이라는 자가 보고 ‘과연 만인(蠻人)이다.’ 하였으므로 드디어 금려(禁旅)에 편입하였는데, 대개 그 사람들은 화포(火砲)를 잘 다루기 때문이었다. 그들 중에는 코로 통소를 부는 자도 있었고 발을 흔들며 춤추는 자도 있었다.⁸⁾

하멜 일행은 약 10개월간 제주에서 생활하다가 서울로 압송되었다. 효종을 알현하여 일본으로의 송환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오히려 훈련도감에 소속되어 호패와 무기를 받았다.⁹⁾

하멜 일행은 군인으로서 생활하였지만 그보다 잡역에 종사하면서 고관의 집에 방문하여 마치 광대와 같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였다. 결국 청나라에서 온 사신에게 선처를 호소하며 탈출을 감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¹⁰⁾ 그러나 실패하였고 이 문제로 조정에서는 이들의 격리 조치를 결정하였다.

따라서 1656년부터는 강진의 전라도 병영에 머무르게 되었다. 여기에서도 각종 잡역에 종사하며 힘든 생활을 하게 되는데 11명이 사망하고 22명만이 남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여수, 순천, 남원에 분산되기에 이른다.

8) 『효종실록』 효종 4년 계사(1653, 순치 10) 8월 6일(무진)조의 기록이다.

9) 『효종실록』 효종 6년 을미(1655, 순치 12) 8월 25일(기묘), "당초에 남만인(南蠻人) 30여인이 표류하여 제주(濟州)에 이르렀으므로 목사 이원진(李元鎭)이 잡아서 서울로 보내었다. 조정에서 늬료를 주고 도감(都監)의 군오(軍伍)에 나누어 예속시켰다."

10) 『효종실록』 효종 6년 을미(1655, 순치 12) 8월 25일(기묘), "청나라 사신이 왔을 때에 남북산(南北山)이라는 자가 길에서 곧바로 하소하여 고국으로 돌려보내 주기를 청하니, 청사가 크게 놀라 본국을 시켜 잡아 두고 기다리게 하였다. 남북산이 애가 타서 먹지 않고 죽었으므로 조정이 매우 근심하였으나, 청나라 사람들이 끝내 묻지 않았다."

여수에서 지내던 하멜은 1666년 9월 동료 7명과 함께 미리 준비한 배를 이용해 탈출하였다. 탈출 후 하멜 일행은 일본의 고토(현재의 나가사키)에 표착하였다. 이후 협상¹¹⁾을 통해 남아있던 8명도 일본으로 송환됐으며 1670년 모두 네덜란드로 돌아갔다.

귀국 후 하멜은 조선에서 억류되었던 13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기 위해 동인도회사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1668년에는 이 보고서를 근거로 『하멜 표류기』가 출판되는데, 이때까지 서양 세계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조선이라는 미지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이 책은 서양인들의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11) 『현종실록』에 이때의 협상과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다. 현종 7년 병오 (1666, 강희 5) 10월 23일(경오), 동래 부사 안진(安禎)이 치계하여 아뢰기를, “차왜(差倭) 굴성진(橋成陳) 등이 은밀히 역관들에게 말하기를 ‘10여 년 전에 아란타(阿蘭陀) 군민(郡民) 36명이 30여 만 냥(兩)의 물건을 싣고 표류하여 탐라에 닿았는데, 탐라인이 그 물건을 전부 빼앗고 그 사람들을 전라도 내에 흩어 놓았다. 그 가운데 8명이 금년 여름에 배를 타고 몰래 도망와서 강호(江戶)에 정박했다. 그래서 강호에서 그 사건의 본말을 자세히 알고자 하여 서계(書契)를 예조에 보내려 한다. 아란타는 바로 일본의 속군(屬郡)으로 공물(貢物)을 가지고 오던 길이었다. 황당선(荒唐船)이 표류해 오면 즉시 통지해 주기로 전에 굳게 약속하였는데, 지금 통지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물건을 빼앗고 사람을 억류하였으니, 이것이 과연 성실하고 미더운 도리인가. 차왜가 나오면 반드시 서울에 올라가 서계를 올릴 것인데, 본부(本府)와 접위관(接慰官)의 문답이 예조가 답한 서계와 다르지 않아야 일이 어긋나는 단서가 없게 될 것이다. 또 도주(島主)와 강호의 집정자 사이에 틈이 있는데, 이번 일은 매우 중대하여 만약 서로 어긋나기라도 한다면 도주가 먼저 화를 입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비국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 회계하기를, “장계에 말한 아란타 사람은 몇 년 전에 표류해 온 만인(蠻人)을 말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복색이 왜인과 같지 않고 말도 통하지 않았으므로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무슨 근거로 일본으로 들여보내겠습니까. 당초에 파손된 배와 물건을 표류해 온 사람들로 하여금 각자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였으므로 우리에게 잘못이 없으니 숨길 만한 일도 없습니다. 차왜가 오면 그대로 답하면 그만입니다. 역관을 시켜 복장과 말이 왜인과 같았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그들의 답을 들은 다음에 만인의 실상을 갖추어 언급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3. 벨처(Edward Belcher)의 사마랑(Samarang)호

1787년 프랑스의 라페루즈(La Perouse)가 지휘하는 탐험대가 제주도 남단에 도착하게 된다. 이 때 서양인에 의해 최초로 제주에 대한 지리적 탐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라페루즈 일행은 제주도 근해에 접근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동해로 올라가 울릉도를 발견하기까지 한다. 라페루즈의 항해기에는 제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1787년 5월 19일 : 지금까지 그렇게도 잔잔했던 바다에는 풍랑이 대단히 심하게 일었다. 이때 닻이 닿는 수심은 약 46m이었다. 나는 일순간도 지체 없이 출발 신호를 했고, 북동 1/4동방향, 제주도(Que lpaert)로 항로를 지도했다. 제주도는 일본 해협에 진입하기 전의 최초의 인식 지점이다. 이 섬은 1653년 홀랜드 선박 스페르웨르호가 좌초함으로써 유럽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이 시기에 조선왕의 지배하에 있었다.

우리는 5월 21일 이 섬을 알게 되었는데, 거리 측정에는 이상적인, 더 할 수 없이 맑은 일기였다.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한 섬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섬의 남쪽 첨단부의 위치를 북위 33°15', 동경 124°15' (위도는 오늘날의 수치와 같고, 경도는 현재 126°15' 이므로 약 2°정도의 차이가 남)으로 확정했다. 나는 섬에서 11km 떨어져 항해하면서 67km(제주도 동서의 길이는 73km)에 걸쳐서 전개된 해안을 최대한 세심하게 측정했고, 이를 베르니제(Bernizet) 씨가 지도로 작성했다. 정상의 높이는 약 1천9백50m이었고, 1백에서 1백10km 거리에서 식별할 수 있었다.

정상은 섬 한가운데 우뚝 솟아 있었고, 이 산 자체가 섬인 것 같았다. 토지는 매우 완만한 경사로 바다까지 내려왔다. 이 경사면에 있는 집들은 마치 대강당의 층계처럼 층을 이루고 있었다. 땅은 아주 높은 지대까지 경작된 듯했다. 망원경을 통해 밭과 밭 사이의 구분을 알아볼 수 있었다. 밭이 아주 작게 나누어진 것으로 보아 인구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각종 경작물이 매우 다양하게 자라는 모습은 이 섬을 더욱 아름답게 했다.

불행히도 이 섬은 외국인과의 소통이 금지된 민족에 속하며, 이 민족은 이 나라 해안에 표류하는 불행을 겪는 모든 사람을 노예 상태에 억류해 둔다. 스페르웨르호에 승선했던 네덜란드 사람들 중 몇 사람은 18년간의 억류 생활 중 여러 차례 매를 맞았고, 어느 날 쪽배를 탈취하여 일본을 거쳐, 바타비아¹²⁾로 갔고, 거기서 마침내 암스테르담에 도착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 이야기(『하멜표류기』를 말함)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이로 미루어 보아 이 섬의 해안에 보트를 보내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았다. 우리는 두 척의 쪽배가 해안을 떠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 배들은 우리와의 거리 5~6km 이내로 접근하지 않았다. 짐작컨대, 그들의 목적은 단지 우리를 관찰하고, 이에 대하여 조선 해안에 경보를 보내는 것일 것이다. 나는 자정까지 북동 1/4동방향으로 항로를 계속했고, 날이 새기를 기다리면서 기관을 켰다. 날씨는 흐리고 짙은 안개가 끼었다. 서쪽으로 제주도의 북동 첨단부가 보였다. 나는 조선 본토에 접근하기 위해 항로를 북북동에 고정했다. 우리는 시간마다 수심을 측정했다. 수심은 1백10~1백30m이었다.

12)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를 말한다. 네덜란드에 의해 식민 지배를 받을 때에는 바타비아라고 하였다.

5월 20일 : 날이 밝아, 한반도 앞에 길이 83 km 이상에 걸쳐 일련의 체인을 이루고 있는 여러 섬들과 바위섬들을 확인했다. 이 섬들은 북동 및 남서 방향으로 펼쳐져 있었고, 그중 가장 남단에 있는 섬들의 위치는 북위 35°15', 동경 127°7'였다. 짙은 안개 때문에 대륙(한반도)은 볼 수 없었는데, 거리는 28~33 km였다. 우리는 한반도를 다음 날(5월21일) 아침에야 볼 수 있었다. 한반도는 수많은 섬들을 앞에 두고, 그 뒤에 자태를 나타냈다. 이 작은 섬들의 남쪽 11 km 지점에 있는 항아리형 해저는 수심이 64m였다. 하늘은 계속 흐리고, 희끄무레했다. 그러나 해가 안개를 꿰뚫었고, 우리는 경도와 위도를 보다 잘 측정할 수 있었다. 이는 지리 지식을 위해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세계 지도는, 일본 지도 또는 조선 지도를 바탕으로 예수회 선교사들이 제작한 것들인데, 지금까지 어떤 유럽 선박도, 이 지도상에 나타나 있는 해양들을 지나간 적이 없었다.

사실, 이들 선교사들은 오차가 되도록이면 적게 나도록 북경을 기준으로 하여 세심하게 측정한 위도에 기초하여, 관측한 육로를 바탕으로 세계 지도를 수정했다. 이들이 아시아 이 지역의 지리에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들만이 우리에게 진실과 아주 가까운 지도들을 작성하여 알려 줄 수 있었던 것이다. 항해가들은 다만 해도(海圖) 부분의 세부 사항이 빠진 것만을 유감으로 생각하겠지만, 육로로만 여행하던 예수회 선교사들이 해도를 그릴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하다.¹³⁾

13) 이진명, 2005,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삼인, pp. 49~50.

1816년에는 영국의 맥스웰(Murrey Maxwell)과 홀(B. Hall)도 조선의 서남 해안과 제주를 조사하고 해도를 작성하였다. 당시의 항해 기록이 1818년에 출간된 홀의 『조선 서해 탐사기』에 전해지는데 제주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9월 10일 : 오늘 아침 10시쯤에 우리는 닻을 올리고 남쪽으로 향했다. 해질녘에 우리는 모든 섬으로부터 벗어나니 이제 남동쪽에 있는 제주도(Quelpaert)를 알아볼 수 있었다. 우리는 이 해안에 잠시 머물렀으며 주민들과 소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은 것은 정보가 부족하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 중략 ... 우리가 추적했던 이 해안의 해도는 앞으로의 여행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으로 이 책에 추가했다. 아주 황급한 상황에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불완전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생한 어떤 지도나 해도보다 더욱 정확하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¹⁴⁾

그러나 라페루즈도, 홀도 제주도에 상륙하여 제주에 대한 본격적인 탐사를 행한 것은 아니었다. 제주를 최초로 가장 세밀하고 정확하게 조사한 서양인은 벨처였다. 그는 영국 해군으로서 세계 각지의 해안선 측량에 참가하였으며 1843년 사마랑 호를 이끌고 중국으로 이르는 항로를 탐사하였다. 1845년 홍콩에 도착한 뒤 다시 유구와 제주를 거쳐 일본, 필리핀 등을 조사하고 1846년 영국으로 돌아갔다. 귀국 후 『사마랑호 항해기』를 출간하였다.

14) B. 홀 지음, 신복룡, 정성자 역주, 2005, 『조선 서해 탐사기』, 집문당. p. 56.

벨처는 제주에 1845년 6월 25일에 도착하였으며 7월 14일까지 37일 동안 머물렀다.¹⁵⁾ 제주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우도를 기지로 삼아 제주도, 거문도, 그리고 거금도 일대의 해안선을 정밀하게 탐사하고 측량하여 해도를 제작하였다. 최초의 제주전도였으며 이 지도는 현대 지도와 비교하여 거의 다름이 없을 정도로 정확하다.

이 해도에서 제주도는 서양에서 이미 알려져 있는 켈파트 섬(Quelpart I.)으로 지칭하였다. 우도는 영국 수로국장의 이름을 따서 뷰포트 섬(Beaufort I.), 한라산을 영국 해군성 장관의 이름을 따서 오클랜드 산(Mt. Auckland)으로 표기하였다. 한라산의 높이를 1,995m로 산출해내기도 했다.

15) 『현종실록』에서 벨처의 제주 탐사와 관련된 기록들을 찾을 수 있다. 현종 11년 을사(1845, 도광25), 6월 29일(기미), 이달에 이양선(異樣船)이 호남(湖南) 흥양(興陽)과 제주(濟州)의 바다 가운데에 출몰 왕래하며 스스로 대영국(大英國)의 배라 하면서 이르는 섬마다 곧 회고 작은 기를 세우고 물을 채는 줄로 바다의 깊이를 재며 돌을 쌓고 회를 칠하여 그 방위(方位)를 표하고 세 그루의 나무를 묶어 그 위에 경판(鏡板)을 놓고 벌여 서서 절하고 제사를 지냈는데, 역학 통사(譯學通事)가 달려가서 사정을 물으니, 녹명지(錄名紙)라는 것과 여러 나라의 지도(地圖)와 종려선(棕欄扇) 두 자루를 던지고는 드디어 돛을 펴고 동북으로 갔다.

7월 5일(갑자), 임금이 회정당(熙政堂)에 나아가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좌의정 김도희(金道喜)가 아뢰기를, “이양선(異樣船)에 대해서 제주(濟州)에서 사정을 물었을 때에 받은 번물(番物) 여러 가지는 그대로 봉하여 제주로 돌려보내 인봉(印封)해 두고 혹 뒷날 이것을 가지고 증거로 삼을 때를 기다리게 하겠습니까마는, 이 배가 세 고을에 두루 정박한 것이 거의 한 달에 가까운데 상세히 사정을 묻지 못하였습니다. 번인(番人)의 형적은 멀리서 헤아리기 어려운데, 일찍이 선조(先祖) 임진년에 영국 배가 홍주(洪州)에 와서 정박하였을 때에 곧 돌아갔어도 그때 곧 이 연유를 예부(禮部)에 이자(移咨)한 일이 있었고, 그 뒤 경자년에 또 저들의 배가 제주에 와서 정박한 일이 있으나 잠깐 왔다 빨리 가서 일이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버려두고 논하지 않았습시다. 이번은 임진년의 일보다 더 이정(夷情)을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있고 사정을 묻는 가운데 청나라 통사(通事)가 있다 하였다 하니, 사전의 염려를 하지 않아서는 안될 듯합니다. 임진년의 전례에 따라 역행(曆行) 편에 예부에 이자하고 황지(皇旨)로 광둥(廣東)의 번박소(番泊所)에 칙유(飭諭)하여 금단하게 하도록 청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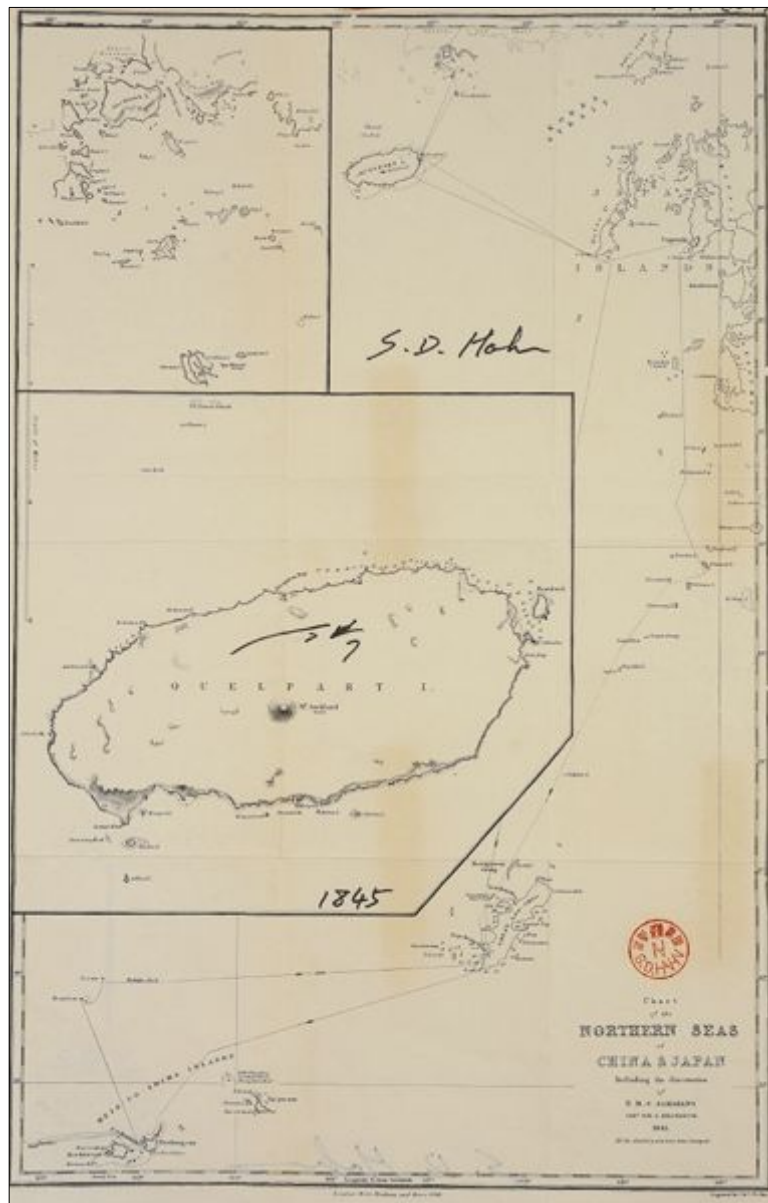


그림 1. 벨처가 작성한 해도, 《Chart of the Northern Seas of China and Japan Including the discoveries of H. M. S. SAMARANG》, Edward Belcher, 1848.

4. 겐테(Siegfried Genthe)의 여행기

제주도를 방문했던 서양인 중에서 가장 제주도를 잘 이해했던 사람은 독일의 겐테이다. 겐테는 1870년 베를린에서 출생하였으며 마르부르크대학에서 지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 후 쾰른 신문사에 취직하여 특파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1900년 중국에 파견되어 북청사변의 현장을 취재했고 1901년 조선을 여행하였다. 그의 조선 여행기는 1901년 10월부터 1년간 <쾰른 신문>에 연재되었으며 그의 사후에는 절친한 친구이자 동료인 베게너에 의해 책으로 출간되었다.

이 여행기에 의하면 그는 극동 지방을 향해하던 중 제주도를 발견하였다.

스트롬볼리 보다 더 높이 우뚝 솟아 있었고, 산 정상은 구름 속에 모습을 감추고 있었다. 일본과 내륙 사이에서 조선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제주도의 화산, 한라산이다. 황해와 중국의 동해가 만나는 곳으로, 독일지도에는 Quelpaert라고 표기되어 있다. 영국인들은 이 화산을 그들의 습관에 따라 오uckland 산(Mt. Auckland)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영국인들은 산이나, 섬, 강을 처음 본 사람이 왕가나 정권을 잡고 있는 각료의 이름을 따서 명칭을 붙이는 좋지 않은 관습이 있다.¹⁶⁾

겐테는 이와 같이 바다 위에서 바라본 한라산의 웅장한 자태에 매료되어 제주도를 방문하게 된다. 제주에 도착 후 당시 제주 목사 이재호를 만나 한라산 등정의 뜻을 피력하였으나 목사는 이를 만류하였다. 만약 누군가가 이

16) 지그리프트 겐테(Siegfried Genthe), 권영경 역, 2007, 『독일인 겐테가 본 신선한 조선, 1901』, 책과함께. p. 221.

조용한 산에 올라간다면 자칫 산신이 노해 뇌우와 흉년, 역병을 일으킬 것이라는 미신 때문이었다. 또 이로 인해 서양인에 대한 제주 주민들의 반감이 커질 경우 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겐테는 뜻을 꺾지 않았고, 목사가 보내준 수행원들과 함께 한라산 정상에 오르는데 성공하였다. 이 장면을 여행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제주도 한라산처럼 형용할 수 없는 웅장하고 감동적인 광경을 제공하는 곳은 지상에 그렇게 흔하지 않을 것이다. 바다 한가운데 솟아 있는 한라산은 육지에서 10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다. 전망이 좋은 높은 산에서도 주변의 시야가 가려 한눈에 보기 힘들지만, 거칠 것 없이 펼쳐진 바다 위로 가파르게 우뚝 솟은 한라산 정상에서는 확 트인 시야에 온 사방을 둘러볼 수 있었다.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아네로이드 기압계로 신중하게 측정해본 결과 분화구 맨 가장자리 높이는 해발 1,950m이다. 참고하기 위해 꺼낸 영국산 기압계는 6,390피트를 가리킨다. 그동안 측정기로 재어본 것이 거의 다 맞는다는 의미다. ... 중략 ...

백인은 아직 한 번도 오르지 못한 한라산 정복은 내 생애 최고의 영광이다. 주변의 많은 반대와 어려움을 무릅쓰고 과감히 시도한 작은 모험이 성공적이어서 그 또한 기쁘고 자랑스롭다.

"250년 전 난파된 네덜란드인들이 처음 보았던 이 산을 너는 온갖 인내와 끈기로 그 정상에 올랐다. 몇몇 유럽인들이 지나가면서 들렀던, 너 이 전에 아무도 오르지 않은, 여기 넓은 바다 위의 신기한 화산을, 너는 스케치하고 사진으로 남기며 또한 고도를 측량하지 않았는가"¹⁷⁾

겐테가 제주도로 향한 시기는 ‘이재수의 난’이 일어난 직후로 민심이 혼란한 상황이었다. 온갖 난관에도 감행한 제주도 여행에서 목사와 제주 주민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한라산을 등정하는데 성공한 최초의 서양인이었다. 뿐만 아니라 한라산의 해발고도를 측정하고 백록담의 분화구 지질을 조사하였다.

겐테의 여행기는 개방적인 태도와 객관적인 관점으로서의 서술로 서양인들에게 잘못 알려진 조선과 제주에 대한 인식, 예를 들어 『하멜 표류기』 등으로 인해 가지게 된 제주 주민들은 난폭하고 잔인하며 서양인에 대해 무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노예로 삼으며 무자비하다는 잘못된 선입견 등을 수정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17) 지그리프트 겐테, 앞의 책, pp. 251~252.

Ⅲ. 서양 고지도에 나타나는 제주 지명의 변천

1. 서양 고지도 속의 다양한 제주 지명

16세기 서양에서 제작된 고지도에서 제주는 주로 ‘Ilha dos Ladrones’로 표기되어 나타났다. 이것은 포르투갈어로 ‘도둑들의 섬’이라는 뜻이다. 1655년에 마르티노 마르티니(Martino Martini)가 출간한 『신중국지도첩(Novus Atlas Sinensis)』에서 제주가 ‘I. Fungma’로 소개되면서 17세기에는 제주가 바람과 말의 섬이라는 뜻을 지닌 풍마로 표기되었다. 그러던 중 1668년 『하멜 표류기』가 출간되고 많은 관심을 끌면서 제주도가 ‘Quelpaert’로 서양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다. 때문에 제주도는 점차 ‘풍마 또는 켈파트’로 함께 표기되거나 풍마와 켈파트가 따로 떨어져 있는 섬으로 그려지는 등의 지리적 혼동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 제주, 대정, 정의 등 제주 삼현의 주요 지명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제주 해역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량되면서 풍마는 사라지고 켈파트 표기가 정착되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서양 고지도 속의 다양한 제주 지명을 파인드코리아 웹사이트 상의 지도를 통해 시대별로 경향성을 파악하고 이를 비교함으로써 그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양 고지도 속의 제주 지명을 유형화하여 지도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먼저 초창기에 나타난 ‘Ilha dos Ladrones’, ‘I. de Ladrones’ 등 도둑들의 섬이라는 뜻을 가진 지명은 ‘L형’으로 정의하였다. ‘Fungma’, ‘Fongma’, ‘Fonima’, ‘Fon-ma’ 등 풍마 계열의 지명은

‘F형’으로, 네덜란드 선박의 이름을 딴 ‘Quelpaert’ 혹은 ‘Quelpart’ 등을 ‘Q형’으로 하였다. 그리고 제주, 대정, 정의 등 제주의 주요 지명으로 표기한 경우는 ‘N형’으로 분류하였다. 기타 ‘Fungma ou Quelpaert’ 또는 ‘Tsitcheu ou Fongma’와 같이 하나의 섬에 두 가지 이름이 표기된 경우는 ‘병기형’이라 설정하였고, 제주를 가리키는 지명인 ‘Fungma’와 ‘Quelpaert’가 따로 떨어진 섬으로 그려진 경우는 ‘병존형’이라 하였다. 간혹 하나의 섬에 두 가지 이름이 표기되고, 제주를 가리키는 또 다른 섬이 있을 경우에는 ‘병존&병기’형으로 분류하였다.

표 1. 서양 고지도 속에 나타나는 제주 지명의 유형화

유형	대표적인 지명
L형	Ladrones
F형	Fungma
Q형	Quelpaert
N형	Kitcheou
병기형	Fungma ou Quelpaert
병존형	Fungma, Quelpaert
병존&병기형	Tsitcheu ou Fungma, Quelpaert

2. 제주 지명의 시대별 변천 과정

1) 16세기

연구 대상으로 삼은 파인드코리아 웹사이트 상의 서양 고지도는 총 983점이다. 시대별로 나누어 그 비율을 살펴보면 16세기 지도가 3%, 17세기 지도가 22%, 18세기 지도가 47%, 19세기 지도가 25% 제작연도 미상의 지도가 4%이다.

표 2. 파인드코리아 웹사이트 상 서양 고지도의 시대별 비율

제작시기	지도 수	비율
16세기	32	3%
17세기	213	22%
18세기	460	47%
19세기	243	25%
제작연도 미상	35	4%
합계	983	100%

한편 전체 983점의 지도 중에서 제주도가 표현되지 않은 지도는 263점으로 약 27%이다. 이를 제작시기별로 살펴보면 18세기의 지도에서 1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전체 지도 중에서 18세기에 제작된 지도

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만큼 그에 비례하여 나타나는 수치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3. 전체 983점 중 제주가 표현되지 않은 지도의 비율

제작시기	지도 수	비율
16세기	20	2%
17세기	51	5%
18세기	139	14%
19세기	47	5%
제작연도 미상	6	1%
합계	263	27%

반면에 제주가 표현되지 않은 지도 중에 제작연도 미상의 지도를 제외하고 약 2%에 해당하는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한 16세기의 지도는 전체 983점 중 16세기 지도가 총 32점뿐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16세기에 제작된 지도 32점 중에서 22점, 무려 61%가 제주가 표현되지 않은 것이다.

사실 16세기 서양에서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인식 그 이상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6세기 서양에서 제작된 고지도에서 우리나라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대부분 한국을 섬으로 묘사하였고 지명 또한 ‘COREA INSULA’, ‘ILHA DE COREA’ 등으로 표기하였다. 반도로 그려졌다고 하더라도 북쪽이 중국 대륙과 붙어 있어 섬인지 반도인지 확인되지 않는 것이 많다. 형태 또한 남북으로 길쭉한 역삼각형, 둥그런 형태, 사다리꼴 모양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제주도가 표현될 리는 만무

했다. 표현되었다고 해도 남해안에 그려진 어떤 섬을 보고 위치상 제주라 추정할 뿐이다. 서양인들이 이 섬을 정확히 제주도를 표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린 것인지 사실은 알 수 없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오히려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조차도 막연한 이 시기에 제주가 표현된 지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기도 하다. 16세기에 동양과 서양의 교류가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서양인들에게는 제주가 동아시아 해역의 중심지로서 조선이라는 미지의 나라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반영으로 제주가 표현된 것으로 보이는 16세기 지도 12점 중에서 제주의 지명을 살펴보면, 형태는 있으나 지명은 없는 지도 1점을 제외하고 모두가 L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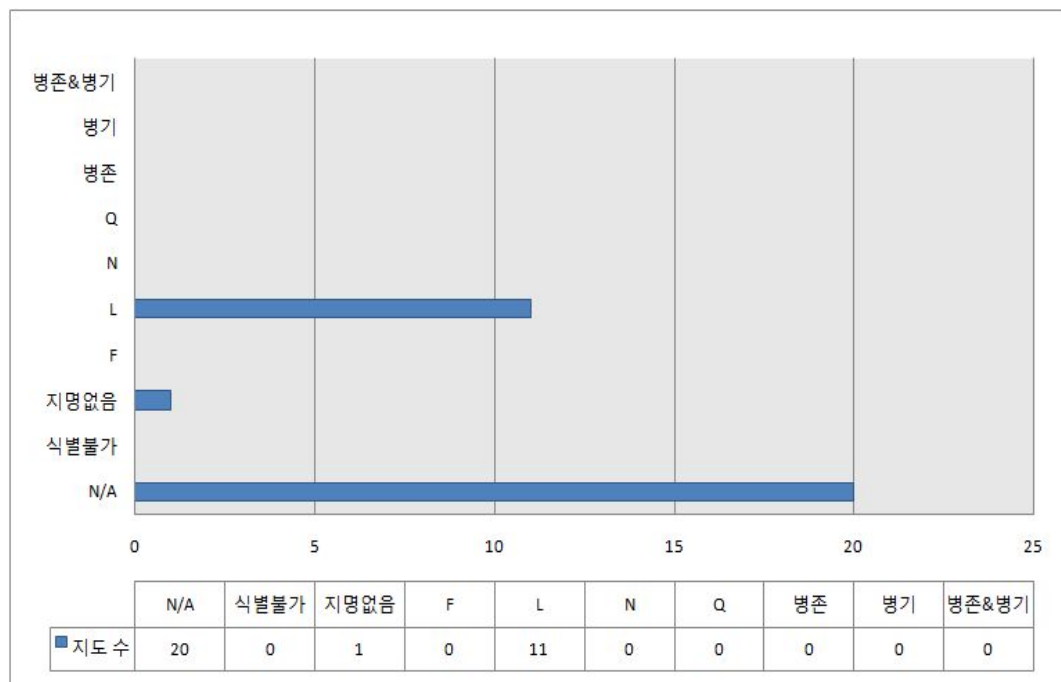


그림 2. 16세기 지도에 나타나는 제주 지명 표기 유형

16세기의 모든 지도에서 나타나는 L형 표기는 ‘Ilhas dos Ladrones’ 즉, 포르투갈어로 ‘도둑들의 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비단 16세기뿐 아니라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초반에 제작된 서양 고지도에서 제주는 대부분 이렇게 표기되어 나타난다. 왜 제주도가 도둑들의 섬이라고 불리었는지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다. 다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당시 제주 부근을 통과하던 서양 선박들이 왜구와 해적들의 잦은 공격을 받음에 그러한 이름이 붙여졌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¹⁸⁾ 또한 제주의 해안지형과도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암초가 많은 제주의 해안지형에 익숙하지 않은 서양 선박들이 이 근처에서 좌초되어 파괴되는 일이 빈번했을 수도 있다.¹⁹⁾ 한편 그 당시 지도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도둑들의 섬’이라는 명칭이 여럿 발견되기 때문에 이는 특별히 제주에 대한 지명이 아니라 그 근처 해역에 해적들이 자주 출몰함을 알리는 경계의 지표였을 것으로도 생각된다.²⁰⁾

18) 서정철, 2000, 『서양고지도와 한국』, 대원사. p. 67~68.

19) 1901년 제주를 방문한 겐테도 이러한 해석을 내린 바 있다.

20) 박대현, 앞의 논문, p. 147



그림 3. 제주가 L형으로 표기된 지도, 《Iaponiae Insulae Descriptio》,
Abraham Ortelius & Luis Teixeira, 1595.

2) 17세기

17세기 지도는 연구 대상 전체 983점 중 총 213점이다. 이 중 제주도가 나타나지 않는 지도가 51점이었고, 제주도는 그려졌으나 이미지의 해상도가 낮고 세부 사진이 없어 지명을 확인할 수 없는 지도는 15점이었다. 나머지 유의미한 146점의 지도를 가지고 17세기 제주 지명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먼저 F형 지도가 55점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은 L형이 52점이었고, Q형이 2점, N형이 2점, 병기형이 2점으로 나타났다. 또 유형에 속하지 않는 기타 지명이 7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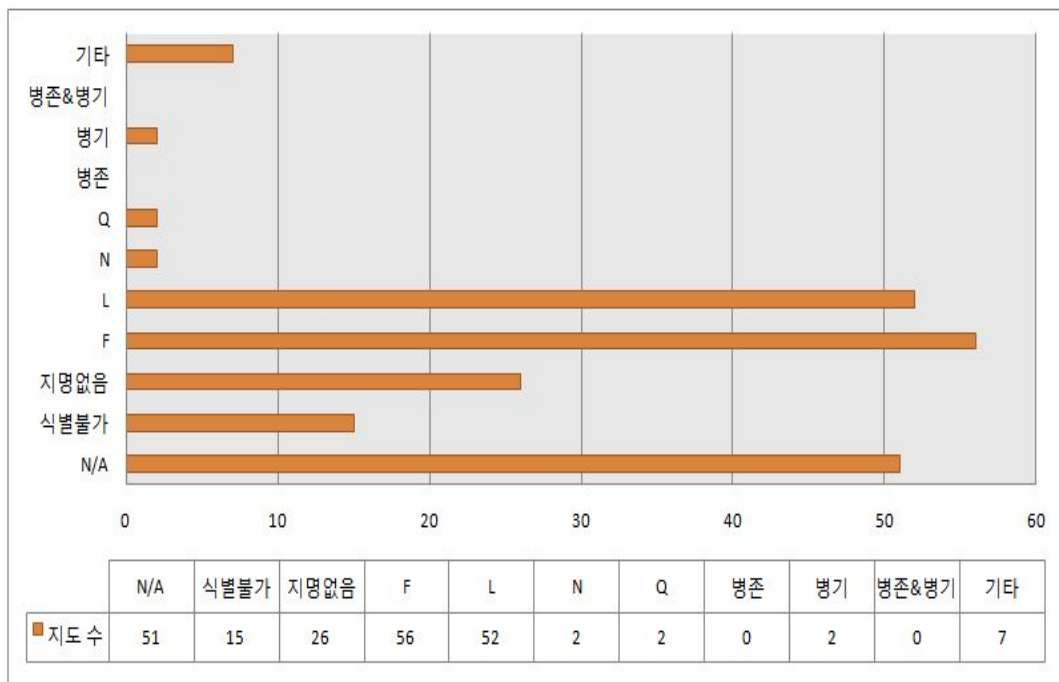


그림 4. 17세기 지도에 나타나는 제주 지명 표기 유형

17세기 중반부터 서양 고지도에서 제주를 대부분 F형, ‘풍마’로 표기된다. 풍마란 風馬, 즉 고려 말에 제주도에 목마장이 속속 세워지는 등의 이유로 중국인들이 바람과 말의 섬이라는 뜻으로 제주를 일컫던 것을 서양인들이 소리를 빌려 표기한 것으로 생각되는 지명이다.²¹⁾ 이러한 표기는 1655년 마르티노 마르티니(Martino Martini)가 출간한 『신중국지도첩(Novus Atlas Sinensis)』에서 처음 소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²²⁾ 이후 마르티니의 『신

21) 오일환, 김기수, 앞의 논문, p. 115. 이에 대해 박대현은 원대(元代)에 제주의 별칭을 말이 풍부한 섬인 ‘풍마도(豐馬島)’라고 부르면서 유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대현, 1996, 『서양인이 본 조선 - 조선관계 서양서지』, 호산방, pp.16~17. pp. 78~79.) 한편 신복룡은 풍마를 ‘탐라’의 오기로 보고 있다. (신복룡, 앞의 책, p. 34, 주11)

22) 박대현, 앞의 논문, p. 148.

『중국지도첩』에서 나타난 ‘I. Fungma’ 이외에도 ‘Funma’, ‘Funoma’, ‘Fongma’, ‘Fon-ma’, ‘Fonima’ 등 다양한 풍마 계열의 표기가 등장하였다.

실제로 연구 대상 지도들을 17세기 내에서 연도별로 유형 분석을 해보았더니 16세기 후반부터 사용되었던 L형 지명이 1655년을 기준으로, 즉 『신중국지도첩』에서 ‘I. Fungma’라는 지명이 소개된 이후로 지명 표기가 이전의 L형에서 F형으로 대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 17세기 지도 중 1655년 전후로 나타나는 F형과 L형 표기 비율

한편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제주를 ‘Quelpaerts’라고 표기한 지도가 나타났다. 켈파트라는 명칭은 네덜란드의 연합동인도회사와 관련 있

는 것으로 보인다. 1630년경 동인도회사에서 선향이 좁고 긴 갯리선을 제작하였는데 이 배의 이름이 켈파트('t Galjodt't Quelpaert de Brack)였다.²³⁾ 1642년경 이 선박은 일본을 향해 항해를 하다가 제주도를 발견하고, 그 섬을 배의 이름 따 켈파트라 명명하고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에 보고하였다. 따라서 1653년 제주에 도착한 하멜은 이전부터 켈파트라라는 섬을 알고 있었고, 일등항해사의 관측에 의해 그들이 도착한 곳이 켈파트임을 확인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하멜보고서가 책으로 출간되면서 서양인들에게 인기를 끌었고 제주도는 서양에서 켈파트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다.²⁴⁾ 때문에 17세기 후반부터는 서양고지도에서 켈파트라라는 지명이 등장하게 된다.



그림 6. 제주가 Q형으로 표기된 지도, 《L'Asie》, P. Duval, 1676.

23) 최근에는 켈파트가 네덜란드가 말레이시아에서 경영하던 선박 공장의 이름이었다는 설도 제기되고 있다.

24) 강준식, 1995, 『우리는 코레아의 광대였다』, 웅진출판주식회사, p. 20.

기타 지명으로 ‘ISOI, AIUNGMA’, ‘Satyrorum I.’가 있었다. 한편 마테오리치(Matteo Ricci)가 1602년 중국에서 제작한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²⁵⁾에서 제주는 ‘濟州’ 한자로 표기되었는데 옛 탐라국임을 알리는 ‘고탐라(古耽羅)’가 병기된 점이 특이하다.



그림 7. 《곤여만국전도》, Matteo Ricci, 1602.

25) 1602년 이탈리아의 예수회 선교사 마테오리치가 베이징에서 명나라 학자 이지조(李之藻)와 함께 만든 지도이다. 비록 중국에서 제작하였지만 서양인이 만들었고, 당시 세계지도상에 우리나라가 반도로 위치하고 그 남쪽에 제주라는 섬이 있음을 정확히 밝힌 지도이므로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다.

3) 18세기

18세기에 제작된 지도는 연구 대상 983점 중 460점에 달한다. 분석 대상이 가장 많은 시기이다. 그러나 이 중 제주도가 나타나지 않는 지도가 137점이며, 이미지의 해상도 등을 이유로 지명 식별이 불가능한 지도는 46점이었다. 따라서 나머지 277점의 지도만을 가지고 지명 분석을 하였다. 결과는 아래 그림 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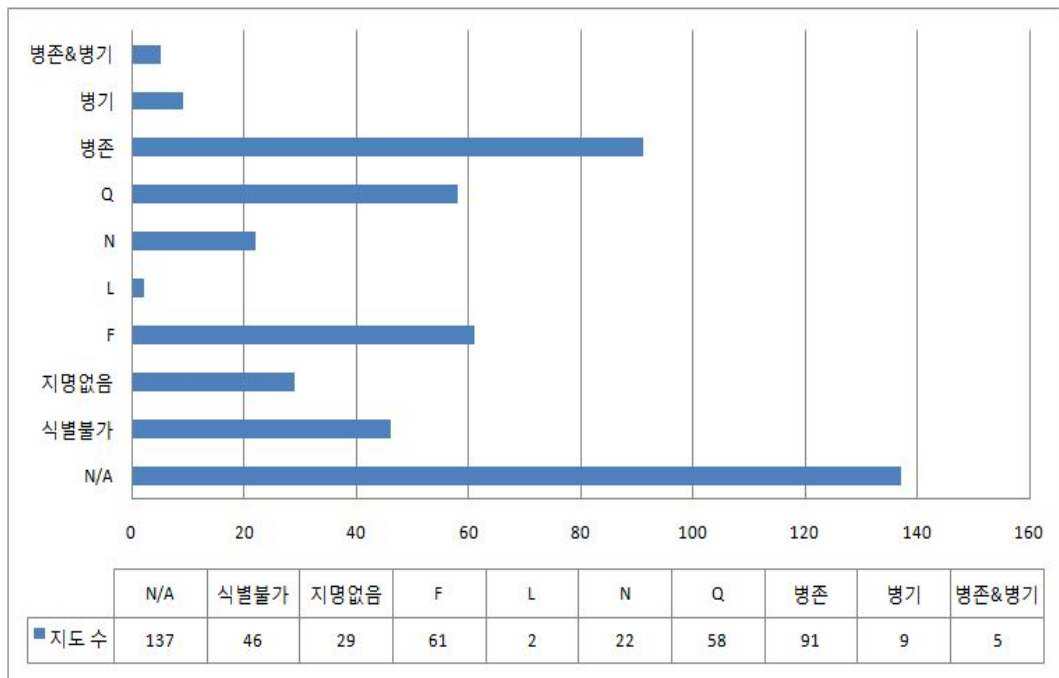


그림 8. 18세기 지도에 나타나는 제주 지명의 유형별 비율

18세기 서양 고지도에서 제일 많이 나타난 제주 지명은 F형과 Q형이 함

게 나타나는 병존형이었다. 병존형이 나타나는 지도가 총 91점이었는데 이 중 79점이 F&Q형이었다. 이로 미루어보아 18세기에는 17세기 중반 이후부터 쓰이던 풍마 표기와 하멜보고서 출간 이후 알려지게 된 켈파트 표기가 별개의 섬으로 인식되어 따로 그려지는 지리적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9. 풍마와 켈파트가 다른 섬으로 인식된 F&Q형의 지도, 《Die Obere Oder Nordliche Halbkugel der Erde auf den Horizont von Wien, Stereographisch entworfen von》, ECKER, J. A. / BENEDICTI, H. / SHALBACHER, P. J. 1800.

그런데 F&Q형 지도 중 드 페르(Nicholas De Fer)의 지도 4점에는 특이하

게도 Quelpaert로 그려진 섬 안에 ‘Mogan’이라는 지명이 표기되어 있었다. 이 지명은 하멜표류기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서에는 ‘Moggan’으로 표기되어 있다.

8월 22 일 : 아침 무렵 우리는 다시 말을 타고 요새를 향해 가다가 아침을 먹었다. 그곳에는 전함 두 대가 있었다. 오후에 우리는 목관(Moggan)이라는 도시에 도착하였으며, 그곳은 그 섬을 다스리는 목사의 관저가 있는 곳으로, 그들은 주지사를 목소(Mocxo:목사)라고 불렀다.²⁶⁾

하멜표류기의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Mogan’이란 ‘제주목’에서 비롯된 표기로 보인다. 목(牧)이란 고려와 조선시대의 지방행정단위를 말한다. 조선시대에는 군읍(郡邑)의 이름이 주(州)로 된 곳 20개를 목이라 하고, 정3품의 외관직(外官職) 목사(牧使), 종6품관 교수(敎授) 등을 파견하여 관할구역을 다스리게 하였다. 제주는 나주, 광주, 능주와 함께 전라도의 4목에 속하였다. 따라서 ‘Mogan’이란 제주목관아(濟州牧官衙址), 즉 목관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²⁷⁾

26) <http://hendrick-hamel.henny-savenije.pe.kr/hollandk5.htm>

27) 이에 대해 박대현은 ‘제주목의 안(內)’을 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대현, 앞의 논문, p. 161.)



그림 10. ‘Mogan’ 표기 지도, 《La Partie Orientale De L'Asie》, Nicholas De Fer, 1705.

병존형 중 나머지 12점은 N&Q형으로 표기되어 있다. N&Q형의 경우 풍마로 표기되던 섬에 풍마 대신 제주를 가리키는 ‘Kitcheu’, ‘Kitcheou’, ‘Kitchew’ 등의 지명이 나타나거나 섬 자체에 대한 이름은 없고 제주를 의미하는 ‘Kitcheou’, 대정을 의미하는 ‘Te-tching’, 정의를 의미하는 ‘Chany’ 등 제주의 주요 도시 지명이 표기되어 있었다. 당시 제주는 한라산을 경계로 북쪽을 제주목으로, 산의 남쪽은 동서로 양분하여 동쪽은 정의현(旌義縣), 서쪽은 대정현(大靜縣)으로 구분하여 현감을 두어 다스렸다.



그림 11. 제주가 N&Q형으로 표기된 지도, 《Carte Du Japon et de la Coree》, Crepy, 1743.

병존형 다음으로는 F형, Q형, N형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N형의 경우, 17세기에서 보다 약 7% 증가하였는데 보통 풍마로 표기되는 섬에 풍마 대신 지명이 표기되며 켈파트로 표기되는 섬의 위치에 제주 지명이 표기된 경우는 단 한 점도 없었다.



그림 12. 제주가 N형으로 표기된 지도, 《LA CHINE AVEC LA KOREE ET LES PARTIES DE LA TARTARIE LES, BELLIN, Jacques-Nicolas》, 1750.

이 밖에 병기형은 9점, 병존&병기형은 5점이 있었는데 병기형은 모두 F+Q형이었으며, 병존&병기형도 모두 (N+F)&Q로 나타났다.

4) 19세기

19세기 지도는 연구대상 지도 중 모두 278점이다. 이 중 제주도가 표시되지 않은 지도가 55점, 지명을 식별할 수 없는 지도가 40점, 형태는 있으나 지명이 없는 지도가 14점이었다. 나머지 169점의 지도를 가지고 제주 지명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 Q형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병존형이었다. 그리고 F형, 병기형, N형, L형, 병존&병기형 순으로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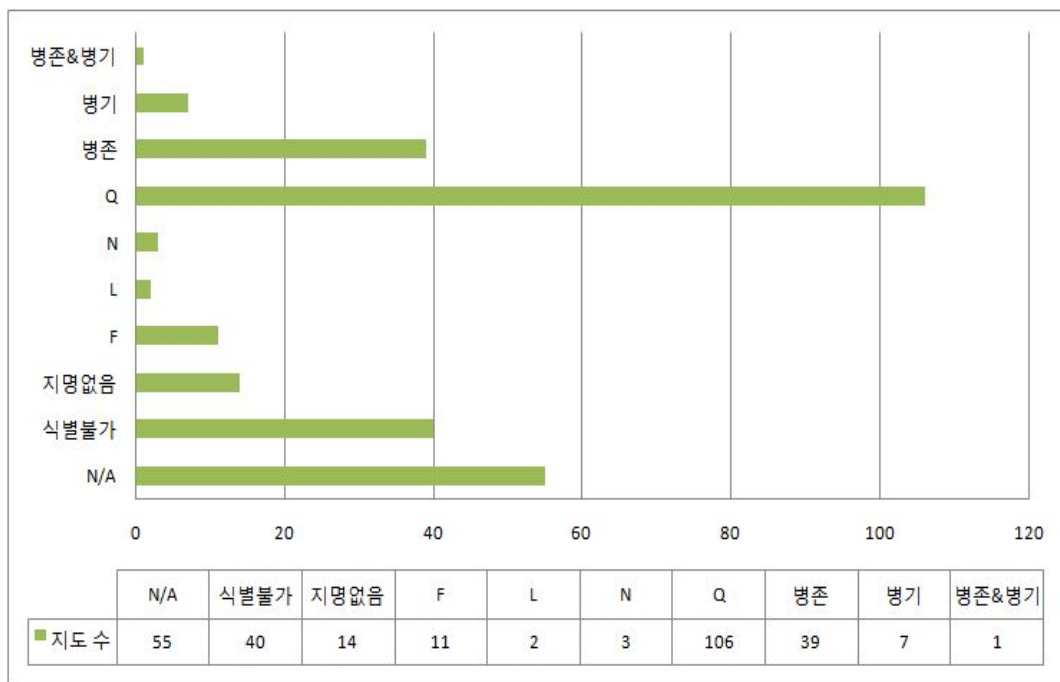


그림 15. 19세기 지도에 나타나는 제주 지명의 유형별 비율

19세기에는 18세기와 비교해서 병존형, 병기형, 병존&병기형의 비율이 크게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19세기가 되면 비로소 제주를 풍마와 켈파트 두 섬으로 따로 그리게 했던 지리적 혼동이 사라지고 제주도가 점차 켈파트로서 명확하게 자리잡아가게 됨을 의미한다. 이 시기에는 제주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량되면서 위치 또한 정확해지고 제주의 다양한 지명들이 소개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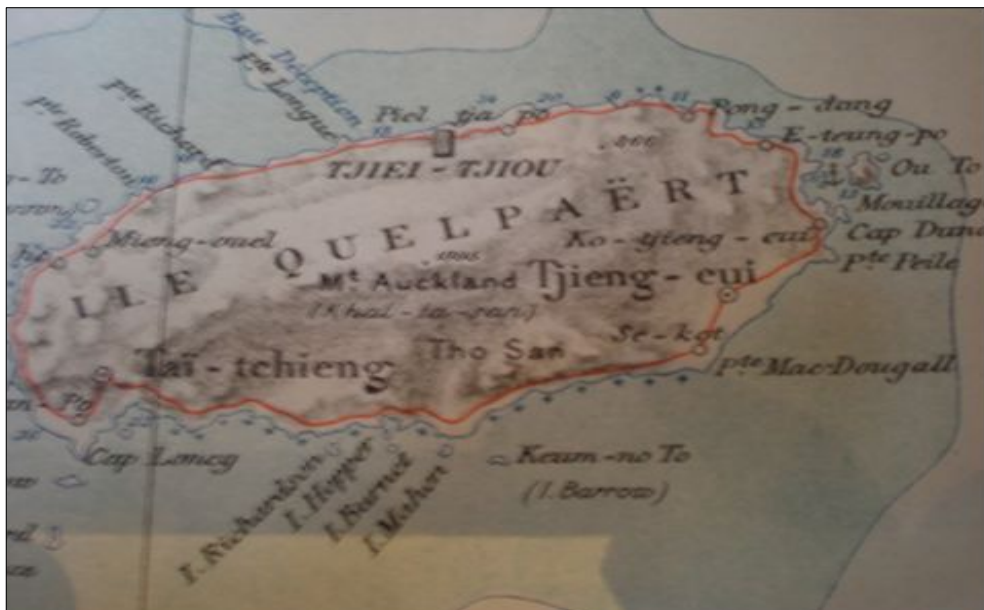


그림 16. 프랑스 정부가 제작한 제주도 지도, 《Quelpaert》, French Government Geological Dept., 1904.

한편 19세기의 지도 중에서 ‘I Mouse ou Quelpaert’ 혹은 ‘Mouse’ 라는 표기가 보이는데 이것은 앞의 18세기 드 페르의 지도에서 나타난 ‘

Mogan’ 표기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것이다. 하멜표류기에 목을 다스리는 목사(牧使)를 가리켜 "그들은 주지사를 목소(Mocxo:목사)라고 불렀다" 라고 언급한 구절이 있는데, 이를 지명으로 이해하고 전사하는 과정에서 ‘Mouse’ 라는 표기가 나타난 듯하다.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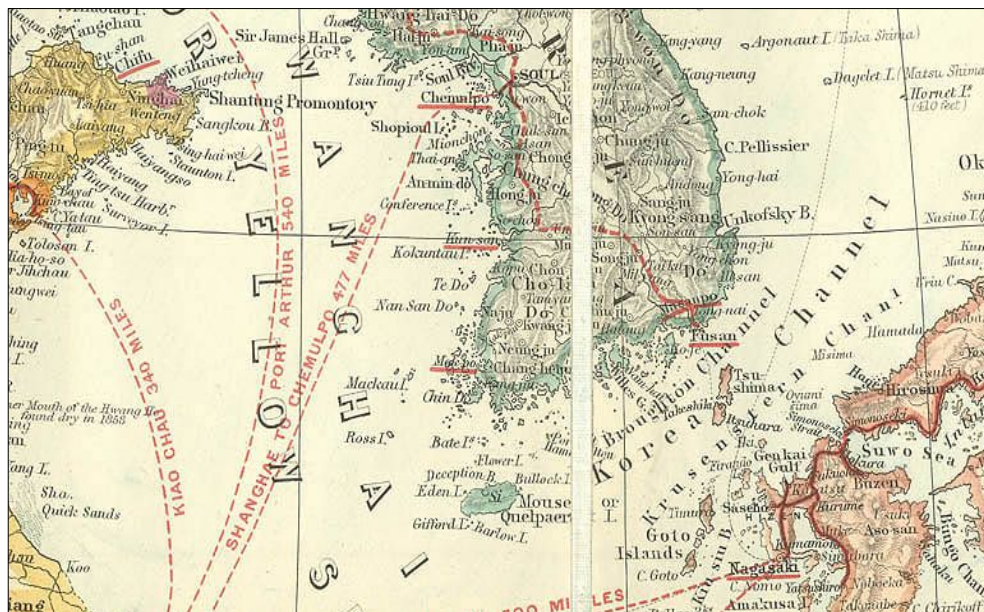


그림 17. ‘Mouse’ 표기가 나타난 지도, 《Stanford's Map of Eastern China, Japan and Korea》, Standford, Edward, 1904.

28) 박대현, 앞의 논문, p. 162.

3. 종합 고찰

본 장에서는 서양 고지도 속 제주 지명의 시대별 변천 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지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서양 고지도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제주 지명을 유형화하였는데 도둑들의 섬이라는 뜻을 가진 지명은 ‘L형’, 풍마 계열의 지명은 ‘F형’, 켈파트 계열의 지명은 ‘Q형’으로 하였다. 그리고 제주의 주요 지명으로 표기한 경우는 ‘N형’으로 분류하였다. 기타로 하나의 섬에 두 가지 이름이 표기된 경우는 ‘병기형’, 풍마와 켈파트가 서로 다른 별개의 섬으로 인식되어 나타나는 경우는 ‘병존형’이라 하였다. 간혹 하나의 섬에 두 가지 이름이 표기되고, 제주를 가리키는 또 다른 섬이 있을 경우에는 ‘병존&병기형’으로 분류하였다.

16세기에 제작된 지도는 무려 61%가 제주가 표현되지 않은 지도로 당시 조선과 제주에 대한 서양인의 인식이 매우 미약했음을 알 수 있었다. 나머지 지도 중에서는 지명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지도 1점을 제외하고 모두 L형으로 표기되어 있었는데, 왜 제주도가 도둑들의 섬이라고 불리었는지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당시 제주 부근을 통과하던 서양 선박들이 왜구와 해적들의 잦은 공격을 받음에 그러한 이름이 붙여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제주의 해안지형과도 관련지어 암초가 많은 제주의 해안에서 서양 선박들이 좌초되어 파괴되는 일이 빈번해 이 지역의 위험성을 알리는 지표로서 사용된 것으로도 생각된다.

17세기 지도에서는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 F형이었고 근소한 차이로 L형이 뒤를 이었다. F형 표기는 1655년 마르티니가 출간한 『신중국지도첩』에서 처음 소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16세기 후반부터 사용되

있던 L형 지명이 1655년을 기준으로 F형으로 대체되었음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풍마라는 지명은 제주를 바람과 말이 많은 섬이라는 뜻으로 일컫던 것을 서양인들이 소리를 빌려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18세기에는 F형과 Q형이 함께 나타나는 병존형이 대다수였다. 제주를 발견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선박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이는 Q형 지명은 17세기 후반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는 1668년 『하멜표류기』의 출간으로 서양에서 제주도가 켈파트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18세기에는 지리적 정보의 부족으로 풍마와 켈파트를 별개의 섬으로 인식하여 따로 그리게 되는 혼동이 빚어진 것이다. 한편 이 시기에는 제주, 정의, 대정 등 제주 주요 지명으로 표기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났다.

19세기가 되면 18세기에 비해 병존형, 병기형, 병존&병기형의 비율이 확연히 줄어들고 Q형이 대다수를 이룬다. 이것은 제주를 풍마와 켈파트 두 섬으로 따로 그리게 했던 지리적 혼동이 사라지고 제주도가 점차 켈파트로서 명확하게 자리잡아가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섬 지명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지명들이 다양하게 소개된 지도들이 등장하기도 한다.

이처럼 서양 고지도 발달 과정 속에서 제주는 16세기 후반에 등장하여 L형으로 표기되다가 17세기 중반 마르티니의 지도를 계기로 F형 표기로 대체된다. 곧이어 『하멜표류기』 출간으로 제주도가 켈파트로 널리 알려지면서 Q형 표기가 등장하고 18세기 지도에서는 풍마와 켈파트가 서로 다른 섬으로 인식되는 지리적 혼란이 야기되면서 F형과 Q형이 병존한다. 그러나 19세기에 제주가 과학적이고 정확한 방법으로 측량되기 시작하면서 F형은 자취를 감추고 Q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IV. 서양 고지도 속 제주의 위치 및 형태 변화

1. 서양 고지도에 나타나는 제주의 위치 및 형태

서양에서 제작된 고지도에서 우리나라는 16세기 중반부터 등장한다. 처음에는 매우 불분명한 형태를 보였다. 둥그런 섬 형태, 혹은 사다리꼴 모양의 섬, 길쭉한 역삼각형의 섬으로 매우 과장되고 왜곡된 형태로 표현되었다. 심지어는 18세기 초반까지 섬으로 그려지기도 하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시기에 제주가 함께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제주가 당시 서양인들에게 이 지역 교역의 중심지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었음을 뜻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형태가 불분명한 만큼 제주의 형태도 매우 불분명했다. 작게 그려지기도 하고 크게 그려지기도 하며, 둥그런 섬 형태를 보이기도 하고 마름모꼴이나 삼각형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표현되었다. 위치 또한 우리나라의 서남쪽 혹은 동남쪽에 그려지기도 하고, 중앙부에 그려지기도 하는가 하였으며 단독으로 나타날 때도 있었고, 제주를 나타내는 지명을 가진 두 개의 섬으로 그려지기도 하며, 주변에 여러 많은 섬들이 함께 표현되기도 하였다.

파인드코리아 웹사이트 상의 서양 고지도를 수차례 살펴본 결과 제주의 위치 및 크기, 형태가 이렇게 불분명한 상태에서 정확하게 나타나는 과정 속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음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먼저 크게 제주도의 위치 및 형태가 정확하게 나타나는 지도와 그렇지 않은 지도로 구분하여 A, B, C형으로 1차 분류를 하였다. A형과 B형은 모두 제주도가 부정확한 위치와 형태를 보이는 지도이지만 A형은 제주도가 하나의 섬으로 나타나고 B형은 제주도가 두 개의 섬으로 그려지는 경우이다. C형은 제주도가 비교적 정확하게 표현된 지도이다.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2차 분류를 하였고 필요에 의하여 3차 분류까지 시도하였다.

표 4. 제주도 위치 및 형태의 유형화 및 분류

	1차 분류	2차 분류	3차 분류
부 정 확	A	A-1	
		A-2	A-2-1
			A-2-2
		A-3	A-3-1
			A-3-2
부 정 확	B	A-4	
		B-1	
		B-2	B-2-1
			B-2-2
정 확	C	B-3	
		세부유형 없음	

먼저 A형은 A-1, A-2, A-3, A-4로 나누었다. A-1은 우리나라가 길쭉한 역삼각형으로 그려지고 남해안에 제주도로 추정되는 둥글고 작은 섬이 ‘Ladrones’로 표기되는 매우 부정확한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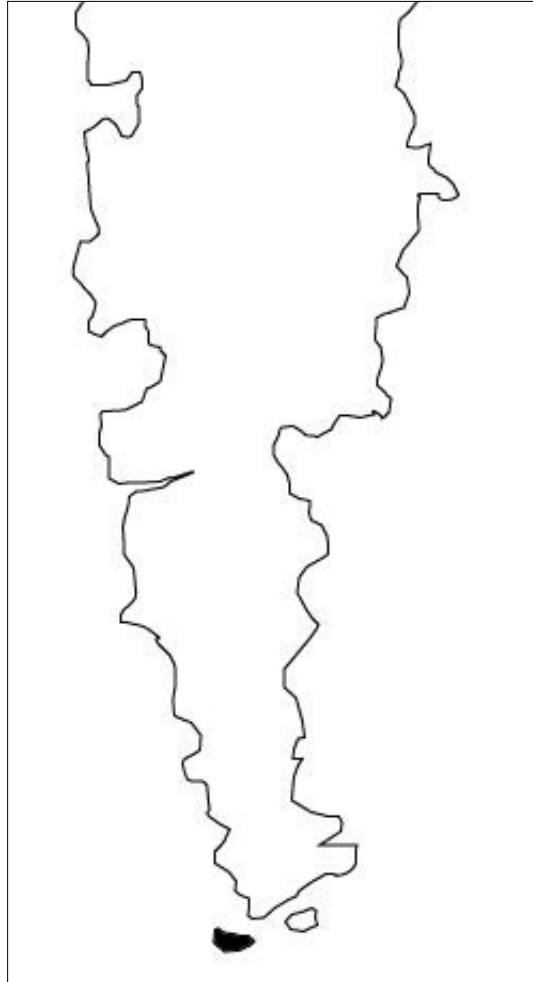


그림 18. A-1형의 제주도 위치 및 형태

※ 색칠한 부분이 제주도를 나타냄

A-2는 우리나라가 반도로 나타나지만, 길쭉하거나 정방형, 사다리꼴 등의 형태로 부정확하게 그려지고 남해안에 제주도로 추정되는 큰 섬이 있다.

이를 A-2-1과 A-2-2로 나눌 수 있는데 A-2-1은 제주도로 추정되는 섬이 사선으로 길쭉한 형태(\)로 나타나며 주변에 여러 작은 섬들도 함께 그려져 있다. A-2-2은 가로로 길쭉한 형태(—)로 나타나며 이럴 경우 주변에 다른 섬은 거의 없는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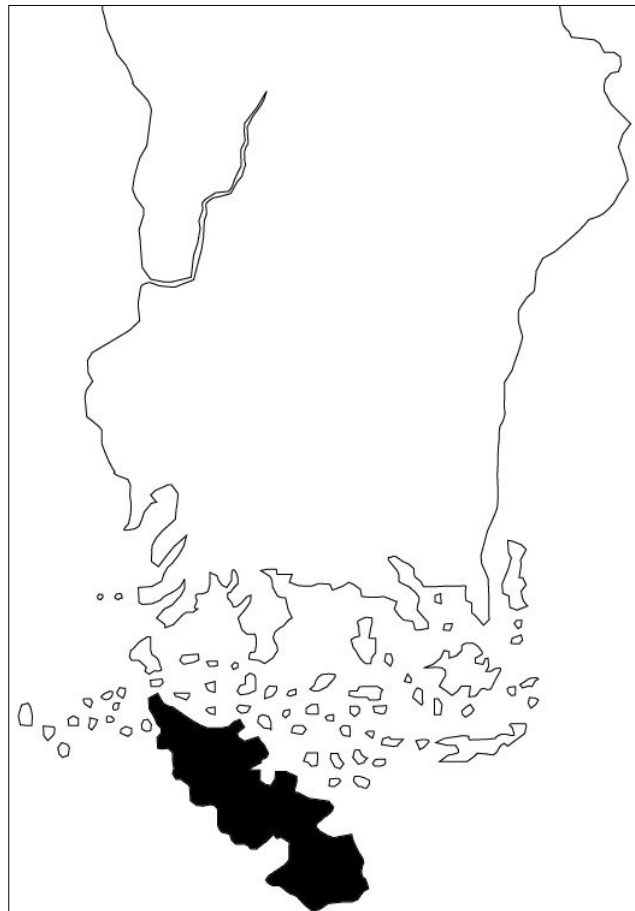


그림 19. A-2-1형의 제주도 위치 및 형태
※ 색칠한 부분이 제주도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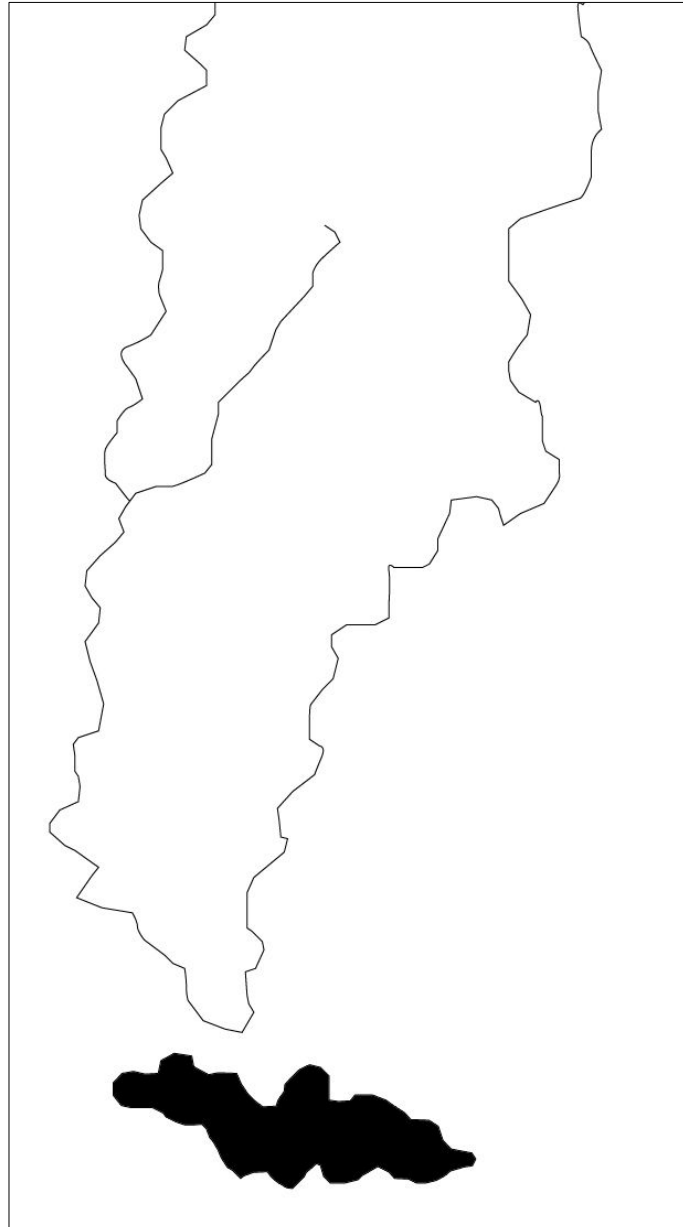


그림 20. A-2-2형의 제주도 위치 및 형태

※ 색칠한 부분이 제주도를 나타냄

A-3는 우리나라의 형태가 비교적 정확하게 나타나며 남해안의 중앙부에 제주도가 그려진다. 다만 제주도가 한반도에 매우 가깝게 그려지기도 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그려지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 A-3-1으로, 후자를 A-3-2로 정의하였다. 형태의 경우 A-3-1과 A-3-2 모두 작고 둥근 섬으로 표현되는 것이 보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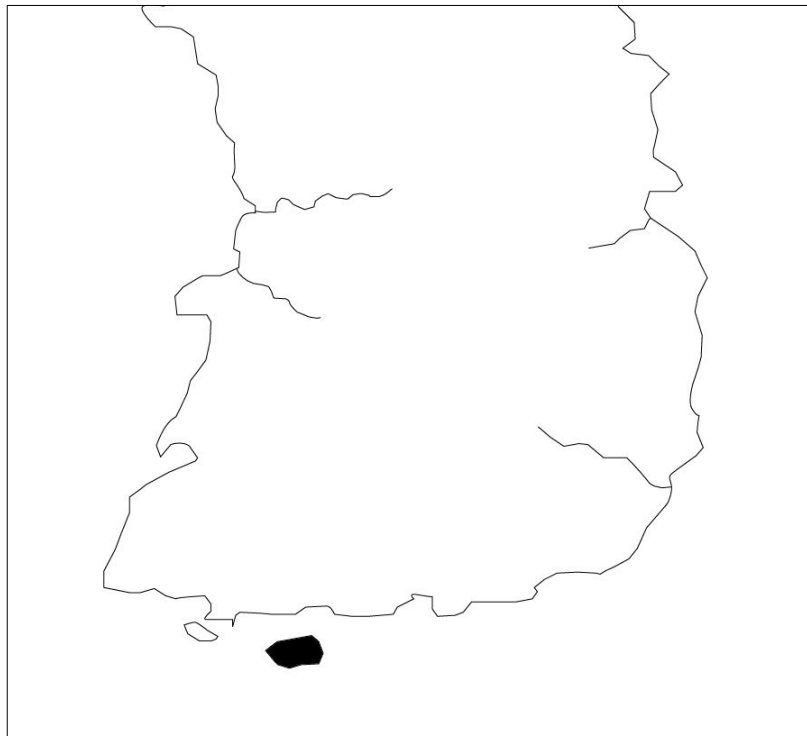


그림 21. A-3-1형의 제주도 위치 및 형태
※ 색칠한 부분이 제주도를 나타냄



그림 22. A-3-1형의 지도, 《L'Asie.. Par Sanson.. Revue par Robert》, Didier Robert de Vaugondy, 1730. (상), 《CARTE DES ISLES DU JAPON ET LA PRESQU ISLE DE COREE Avec 》, Jacque Nicolas Bellin, 1746.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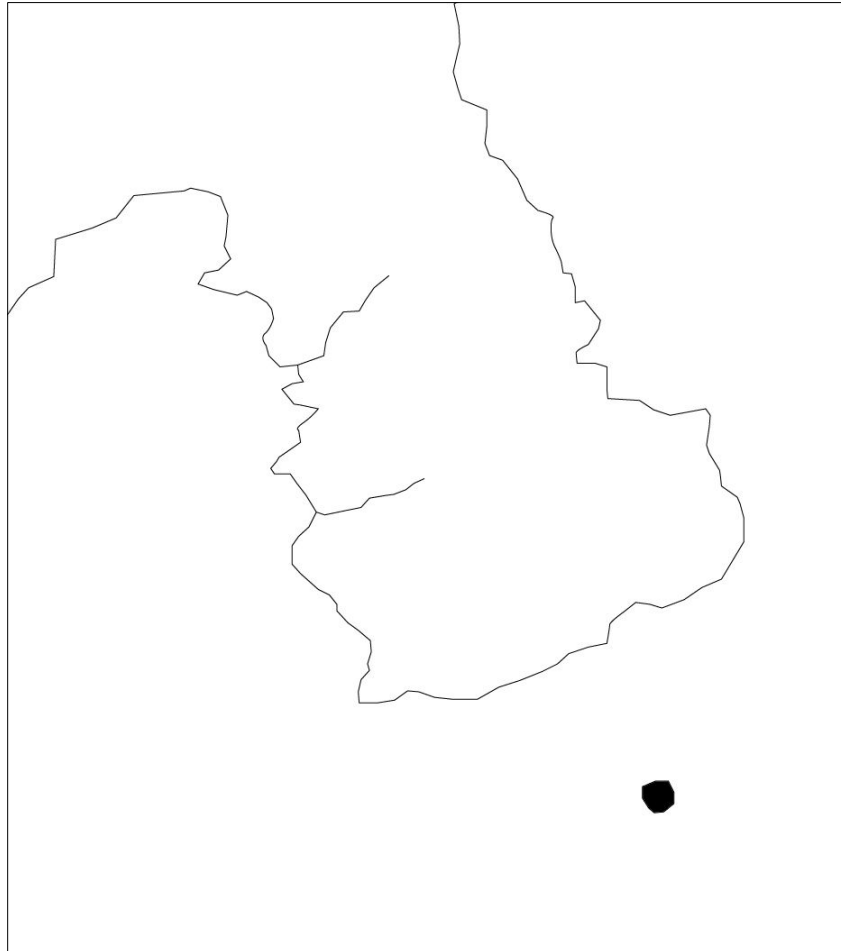


그림 23. A-3-2형의 제주도 위치 및 형태
※ 색칠한 부분이 제주도를 나타냄



그림 24. A-3-2형의 지도, 《Carte Des Parties Nord et Est De L'Asie qui comprend Les Cotes», M. de Vaugondy, 1772. (상), 《An Accurate Map of Russian Empire both in Europw And Asia», Guthries, 1785. (하).

A-4는 제주가 남해안의 서남쪽에 위치하며 한반도에 매우 가깝게 나타나는 경우이다. 크기는 작고 대부분의 경우 삼각형으로 그려진다. 이때에는 풍마나 키쥬, 대정, 정의 등으로 지명이 표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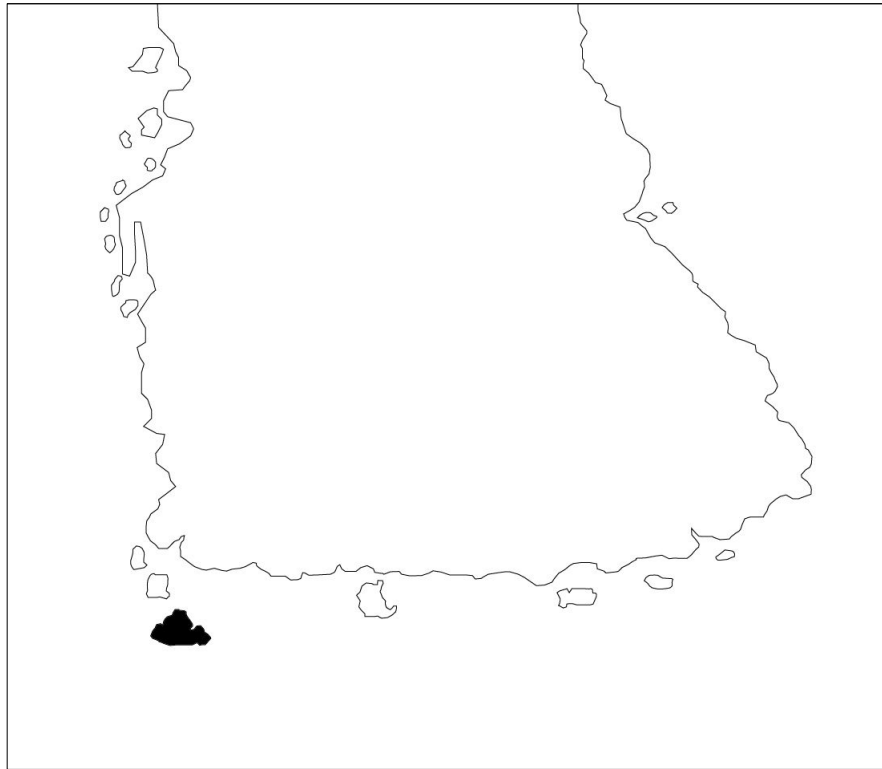


그림 25. A-4형의 제주도 위치 및 형태

※ 색칠한 부분이 제주도를 나타냄

B형은 B-1, B-2, B-3로 2차 분류하였다. 먼저 B-1의 경우 풍마로 표기되는 섬은 남해안 서남쪽에 그리고 한반도에 매우 가깝게 위치하고 켈파트로 표

기되는 섬은 남해안 중앙부에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조금 멀리 떨어져 위치한다. 이러한 위치는 풍마와 켈파트 두 개의 섬이 동시에 나타날 때, 즉 B형의 가장 일반적인 경우이다. 다만 풍마와 켈파트 섬의 크기와 형태로 몇 가지 서로 다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B-1은 풍마와 켈파트가 거의 비슷한 크기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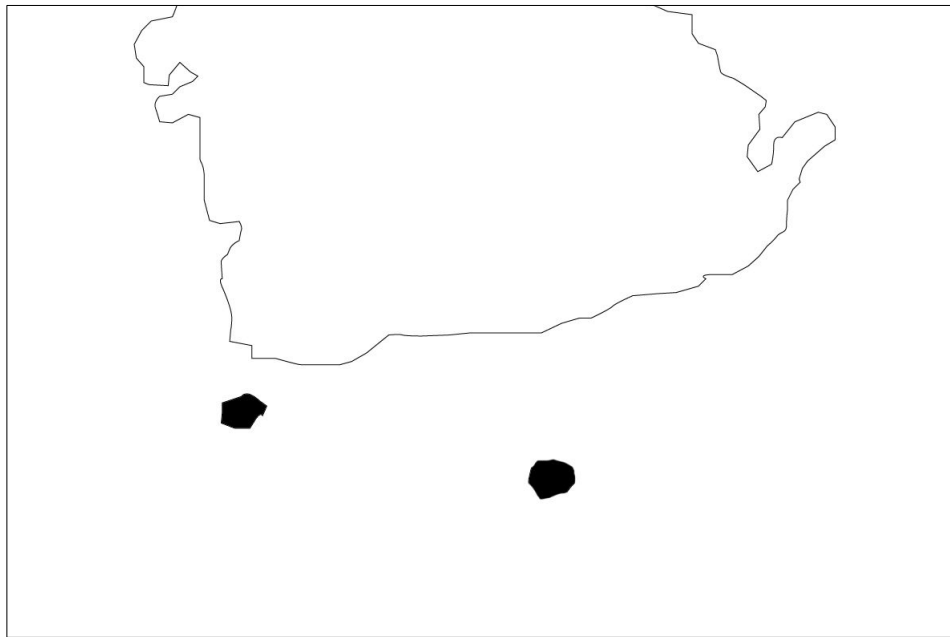


그림 26. B-1형의 제주도 위치 및 형태

※ 색칠한 부분이 제주도를 나타냄



그림 27. B-1형의 지도, 《Asial with its Islands and different Regions, accordings to their Mordern division: also the discovey», Jean Baptiste Bourguignon d' Anville, 1794. (상), 《Siberie ou Russie Asiatique, Tartarie Chinoise, Pays des Eluts et Isles de Japon», Didier Robert de Vaugondy, 1778. (하).

B-2는 위치에 있어서 B-1과 마찬가지로 풍마는 남해안 서남쪽에 그리고 한반도에 매우 가깝게 그려지고 켈파트는 남해안 중앙부에 그리고 한반도에 서는 조금 멀리 떨어져 나타난다. B-1과 다른 점은 풍마는 크기가 작은 삼각형으로 그려지는 반면에 켈파트는 이보다 다소 크면서 세로로 길쭉한 형태, 특히 마름모꼴로 그려진다는 것이다. 이를 다시 B-2-1과 B-2-2로 나누었는데 B-2-1의 경우 켈파트 위에 여러 작은 섬이 나타나며, 때때로 이 작고 많은 섬들이 ‘Dutch Islands’ 라고 표기된다. B-2-2는 켈파트 주변에 이러한 섬이 표현되지 않고 2~3개의 섬 정도만이 그려진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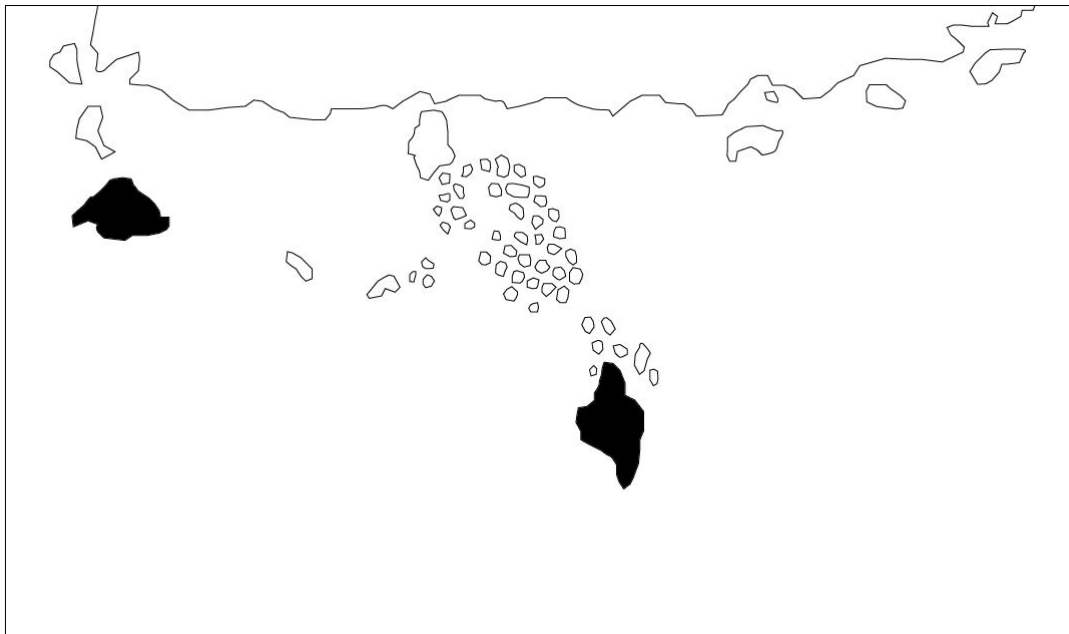


그림 28. B-2-1형의 제주도 위치 및 형태

※ 색칠한 부분이 제주도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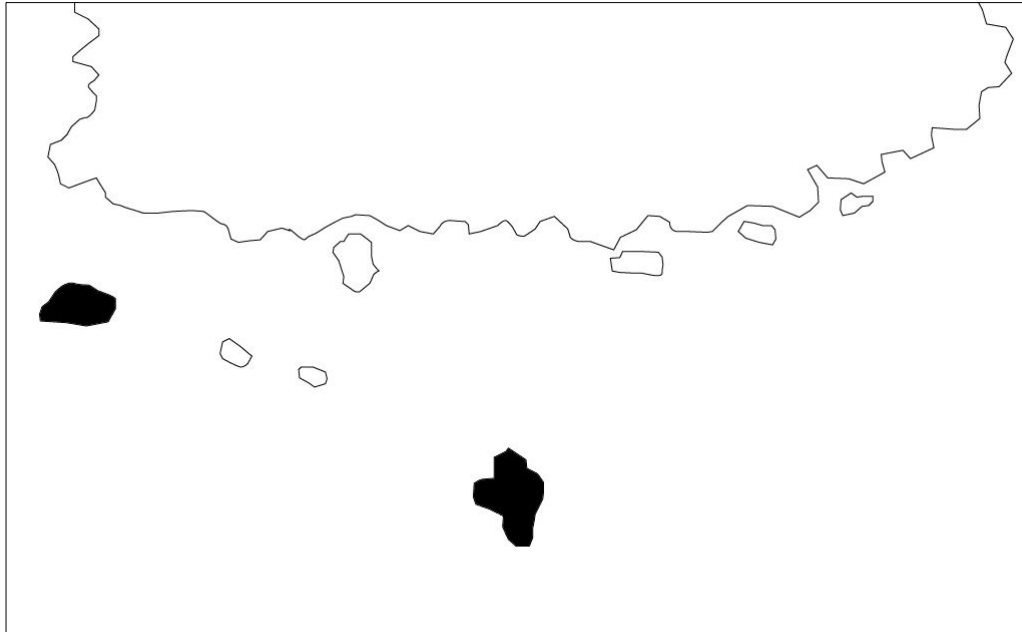


그림 29. B-2-2형의 제주도 위치 및 형태

※ 색칠한 부분이 제주도를 나타냄

B-3는 풍마와 켈파트 두 섬이 그려지기는 하지만 다른 B형들과는 달리 전형적인 위치를 나타내지 않고, 위도 상 비슷하게 나타난다. 두 섬의 크기와 형태 또한 별다를 것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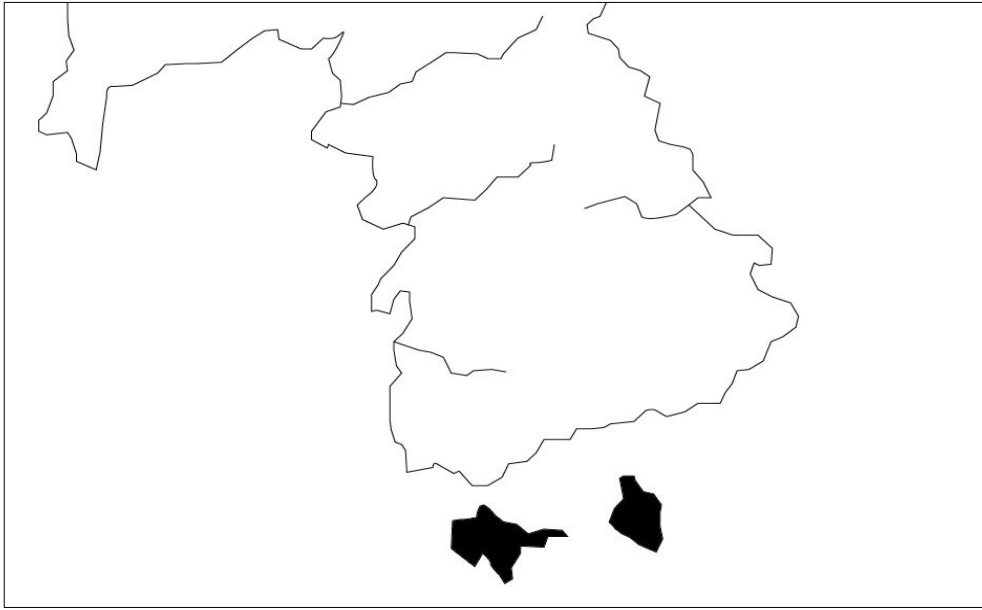


그림 30. B-3형의 제주도 위치 및 형태



그림 31. B-3형의 지도 《L'ASIE divisee en ses principaux Etats ou pays par M. Brion de la Tour, ...》, M. Brion, 1784.

C형은 제주가 비교적 정확한 위치를 찾아가며 형태 또한 가로로 길쭉한 타원형으로 자리잡아가는 경우이다. 이 경우 지명은 풍마와 켈파트의 이중 표기가 없어지고 켈파트로 정착된다. 또한 제주의 다양한 지명들이 소개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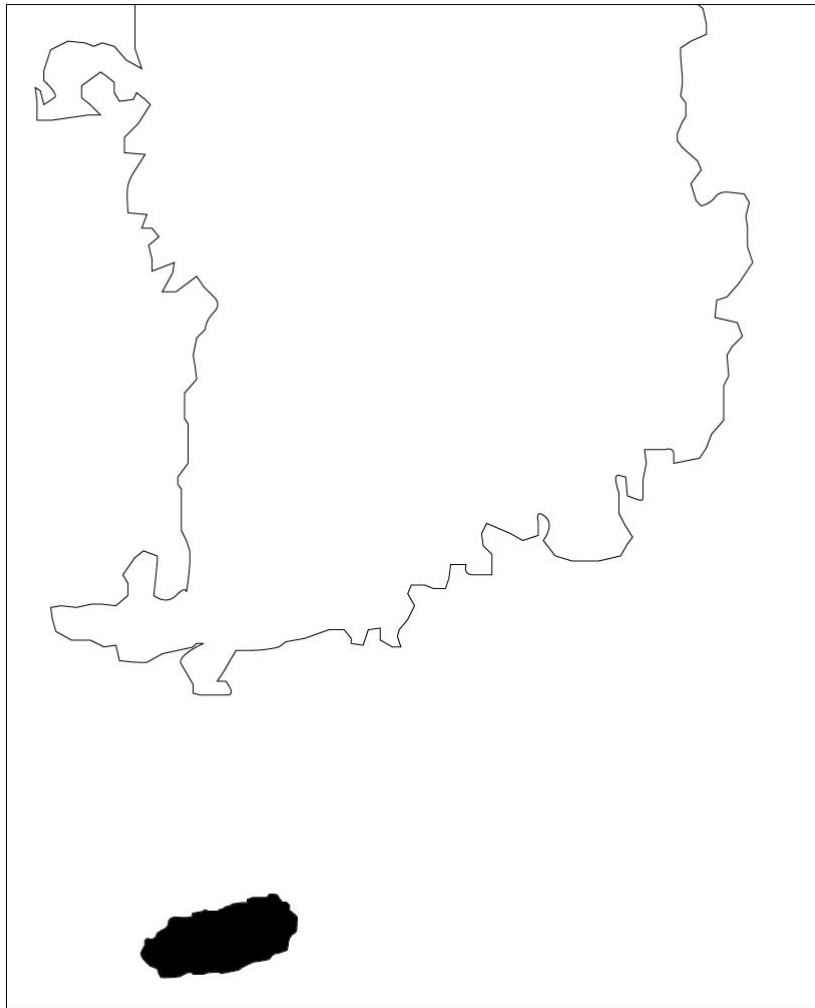


그림 32. C형의 제주도 위치 및 형태

본 장에서는 이러한 유형 구분을 토대로 16세기에서 19세기 동안 서양 고지도 속에서 제주의 위치 및 크기, 형태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알아보았다. 다만 위치 및 형태의 유형 파악에 있어 어느 정도 필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작용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혀둔다.

2. 시대별 제주의 위치 및 형태 변화

1) 16세기

16세기 지도 32점 중에서 제주도가 표현되지 않은 지도는 20점이다. 나머지 12점을 가지고 제주의 위치 및 형태를 살펴본 결과 모두 A형의 지도였으며 세부 유형도 전부 A-1 유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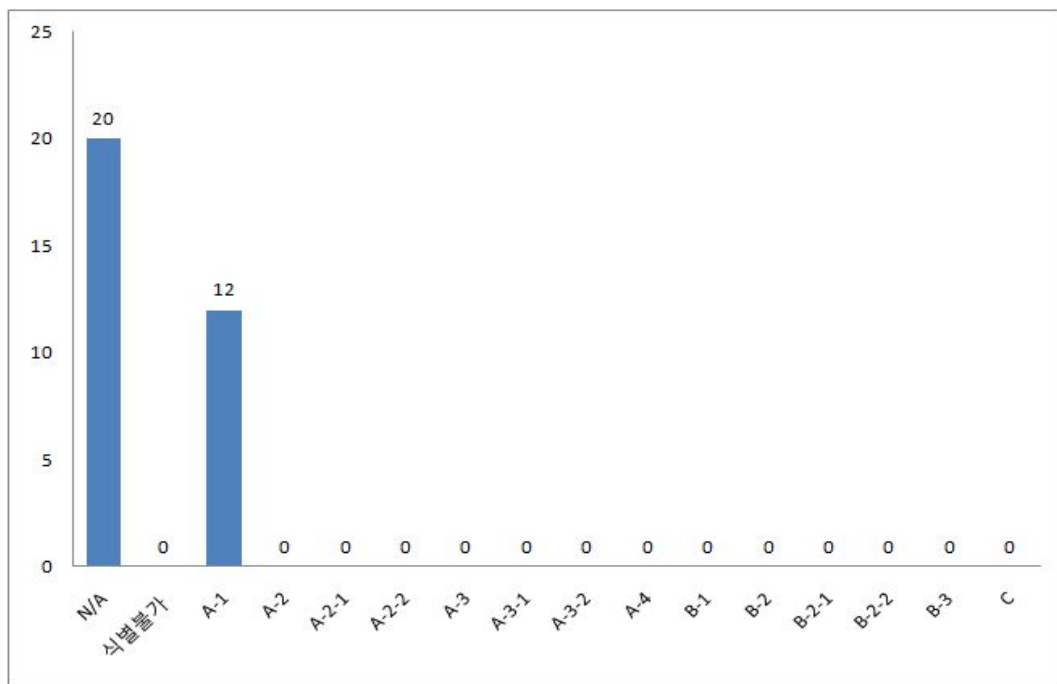


그림 33. 16세기 지도에 나타나는 제주도 위치 및 형태의 유형

표 5. 16세기 지도에서의 제주도 위치 및 형태의 유형

분류	세부 유형	지도 수
N/A	N/A	20
식별불가	식별불가	0
A	A-1	12
	A-2	0
	A-2-1	0
	A-2-2	0
	A-3	0
	A-3-1	0
	A-3-2	0
	A-4	0
B	B-1	0
	B-2	0
	B-2-1	0
	B-2-2	0
	B-3	0
C	C	0
합계		32

A-1 유형의 지도에서 우리나라는 세로로 길쭉하게 나타나며 반도인지 섬인지조차 분간하기 힘들다. 제주 역시 남해안에 아주 작고 둥근 섬 하나로 그려져 있으며 지명은 ‘Ladrones’ 계열로 표기되어 있어 실은 제주도를 표현한 것인지도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16세기에 제작된 서양 고지도에서 제주의 위치 및 형태는 매우 부정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유형의 대표적인 지도로는 테이세이라(Teixeira, L.)가 제작하고 오르텔리우스(Ortelius, A.)가 출판한 《Iaponiae Insulae Descriptio》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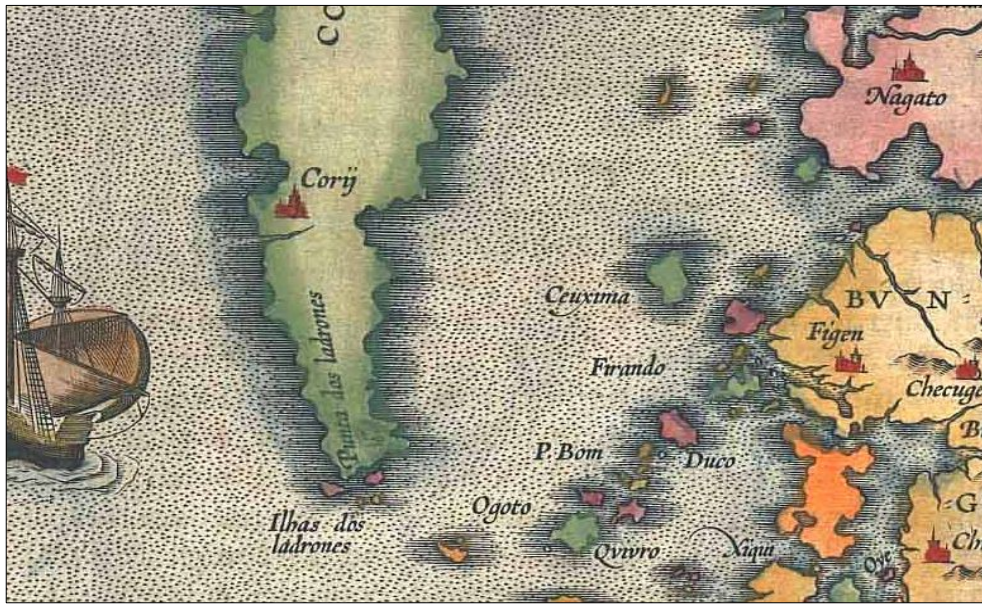


그림 34. 《Iaponiae Insulae Descriptio》, Abraham Ortelius & Luis Teixeira, 1595.



그림 35. 《IAPONIA》, MERCATOR, G, 1595.

2) 17세기

17세기의 지도는 총 213점으로 이 중 제주도가 표현되지 않은 지도는 51점이며, 위치 및 형태가 식별 불가능한 지도가 22점이다. 나머지 지도 140점을 가지고 유형 분류를 실시한 결과 A형은 135점, B형은 5점이었다. 세부 유형으로 살펴보면 A-2-1의 지도가 57점으로 가장 많았고, A-2-2의 지도가 39점으로, A-1의 지도가 35점으로 많았다. 16세기에는 없었던 B형 지도도 등장하지만 그 수가 매우 적고, B형 중에서도 가장 부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B-3 유형의 지도가 대부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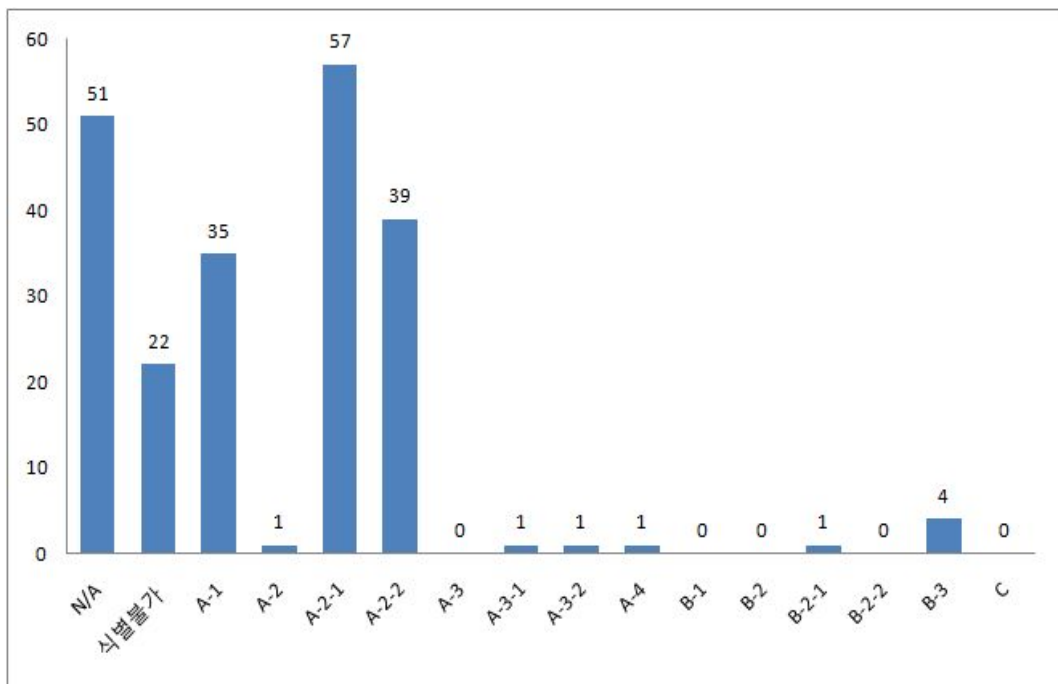


그림 36. 17세기 지도에 나타나는 제주도 위치 및 형태의 유형

표 6. 17세기 지도에서의 제주도 위치 및 형태의 유형

분류	세부 유형	지도 수
N/A	N/A	51
식별불가	식별불가	22
A	A-1	35
	A-2	1
	A-2-1	57
	A-2-2	39
	A-3	0
	A-3-1	1
	A-3-2	1
	A-4	1
B	B-1	0
	B-2	0
	B-2-1	1
	B-2-2	0
	B-3	4
C	C	0
합계		213

17세기 지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A-2 유형의 지도는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로 명확하게 나타나지만, 그 형태는 아직 길쭉하거나 정방형, 사다리꼴 등의 형태로 부정확하게 그려지기 시작하는 지도이다. 남해안에 제주도로 추정되는 섬은 사선 방향으로 길쭉하게 혹은 일자 방향으로 길쭉하게 그려졌는데 두 가지 유형 모두 크기가 매우 과장되어 있다. 즉 이 시기에는 아직은 지리적 정보가 부족하지만 우리나라와 제주도의 존재에 대한 인식만은 명확하게 자리잡아가고 있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그림 37. A-2-1형의 지도, 《CHINA Veteribus SINARVM REGIO nunc Incolis TAME dicta》, HONDIUS, Jodocus & JANSSEN, Jan, 1636. (상), 《IAPONIA REGNVN》, Blaeu, 1662. (하).



그림 38. A-2-2형의 지도, 《Il REGNO DELLA CHINA detto presentemente CATAY e MANGIN》, Cantelli, G, 1682. (상), 《ASIAE Recentissima Delineatio, Qua Status et Imperia Totius》, HOMANN, Johann Baptist, 1700. (하).

3) 18세기

18세기 지도는 연구 대상 자료 중 총 460점이다. 이 중 제주도가 표현되지 않은 지도는 138점, 식별 불가능한 지도는 68점이었다. 나머지 259점의 지도 중에서 A형 지도가 137점, B형 지도가 109점, C형 지도가 13점이었다. 16세기와 17세기에 비해 B형 지도의 비율이 현저하게 늘어난 것과 비교적 정확한 위치와 형태를 가진 C형 지도가 처음 등장한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

세부 유형으로 살펴보면, B-2-2가 47점으로 가장 많았고, A-4, A-2-2, B-2-1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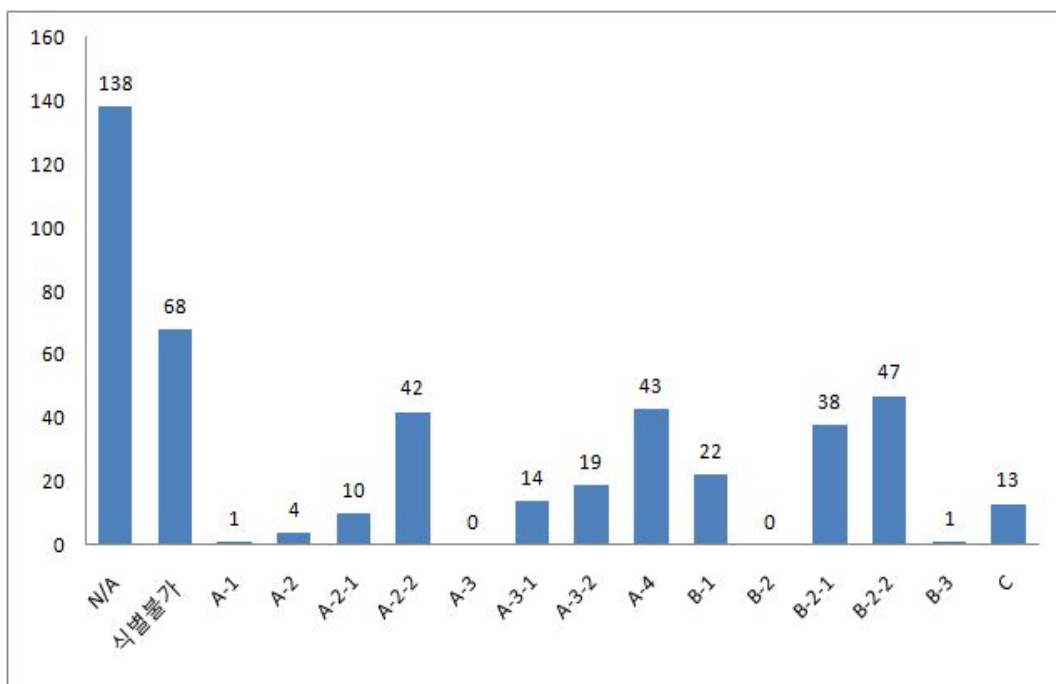


그림 39. 18세기 지도에 나타나는 제주도 위치 및 형태의 유형

표 7. 18세기 지도에서의 제주도 위치 및 형태의 유형

분류	세부 유형	지도 수
N/A	N/A	138
식별불가	식별불가	68
A	A-1	1
	A-2	4
	A-2-1	10
	A-2-2	42
	A-3	0
	A-3-1	14
	A-3-2	19
	A-4	43
B	B-1	22
	B-2	0
	B-2-1	38
	B-2-2	47
	B-3	1
C	C	13
합계		460

B형 지도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18세기에 서양인들이 풍마와 켈파트, 그 사이에서 엄청난 지리적인 혼동이 야기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B-2-2형 지도가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이 지도는 남해안 서남쪽에, 한반도 가까이 즉 현재 진도 부근에 풍마 표기의 섬이 삼각형으로 그려지고 중앙부에, 그리고 한반도에서 조금 멀리 풍마 표기 섬보다는 조금 더 크게 켈파트가 나타난다. 이 때 켈파트는 길쭉한 마름모꼴로 표현된다. 이러한 유형으로 대표적인 것이 프랑스의 지도 제작자인 보공디(De Vaugondy, R.)가 제작한

《L'EMPIRE DE LA CHINE》이다.



그림 40. B-2-2형의 지도, 《L'EMPIRE DE LA CHINE》, Didier Robert de Vauquondy, 1751.

B-2-1형 지도와의 차이점은 B-2-1형의 경우, 켈파트 섬 위에 작고 둥근 섬이 밀집해 있는 군도가 그려져 있다는 점이다. 때때로 이곳에 ‘Dutch Islands’라는 표기가 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 없지만, 네덜란드 선박들이 이 근처 해역을 자주 지났으므로, 혹은 네덜란드인들이 제주에 많이 표류하였음이 하멜보고서를 통해 알려졌으므로 이런 표기가 생겨나지 않았는가 싶다. 각설하고 B-2-2 유형의 지도는 이러한 정체모를 군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B-2-1에 비해서 좀 더 정확해진 지도라고 볼 수 있다.



그림 41. B-2-1형의 지도, 《Karte von der Provinz Quantong oder Lyau-tong und dem KOENIGREICHE KAU-LI oder KOREA nach der englic》, Nicolas, 1750.

또한 B-2-2 지도 다음으로 많이 나타난 것이 A-4형 지도였는데, A-4형은 지도상에 켈파트 섬은 없고, 풍마 섬만 있는 유형의 지도이다. 이 유형의 지도에서 풍마 섬은 위치상 한반도 가까이에 붙어서 남해안의 서남쪽에 나타난다. 형태는 작고 둥글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삼각형으로 그려져 있다. 지명은 풍마로 되어있거나 제주의 주요 행정구역 지명인 키췌, 대정, 정의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지명 상으로 켈파트가 등장하기 전이므로 B-2-1형 바로 이전에 나타나던 유형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지도는 프랑스의 지도 제작자 당빌(D'Anville, J. B.)의 《ROYAUME DE COREE》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지도는 중국 청나라 강희제의 명을 받은 예수

회 선교사들이 제작한 ‘황여전람도’에 수록된 지도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서양에서 발행된 최초의 독립된 한국지도이다. 이 지도는 본래 1735년 뒤 알드(Du Halde, J. B.)의 지도첩에 처음 소개되었으나, 1737년 출판된 당 빌의 『신중국지도첩(NOUVELLE ATLAS DE LA CHINE)』에 재수록되었다. 이후 19세기 중반까지 서양지도에 등장하는 우리나라의 보편적 형태를 제공하였다.²⁹⁾



그림 42. A-4형의 지도, 《ROYAUME DE COREE》, D'Anville, J. B, 1737.

29)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2008, 『ANTIQUE MAPS & KOREA』, 경희대학교 출판국, P. 28.

한편 이 시기에 제주가 현대 지도의 모습에 가까운 위치와 형태로 표현되는 C형 지도의 등장함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장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1787년 최신식 과학적인 장비를 갖추고 라페루즈 탐사대가 제주도 근해를 다녀갔다. 이 때 제주도에 대한 구체적인 탐사가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지만 라페루즈는 제주도 부근을 항해하며 제주를 실측하여 부분도를 작성하였다(그림 43 참조). 이 지도로부터 제주도 해안선이 정확해지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차츰 제주가 정확하게 표현되는 지도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림 43. 《PART OF THE ISLAND OF QUELPAERT》, De Galoup, J.-F., Comete de La Perouse, 1798.

4) 19세기

19세기 지도는 연구 대상 자료 중 총 278점이다. 이 중 제주도가 없는 지도가 56점이었으며, 이미지 크기나 해상도 등의 이유로 식별불가능한 지도가 45점이었다. 나머지 지도 177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도는 C형 지도로서 약 64%에 해당하는 114점이나 되었다. 이는 19세기가 되면 제주 해역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량되고 지도에서 정확한 지리 정보를 가지게 됨을 반영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많은 것은 B-2-2, B-2-1 순이었고 나머지 유형은 소수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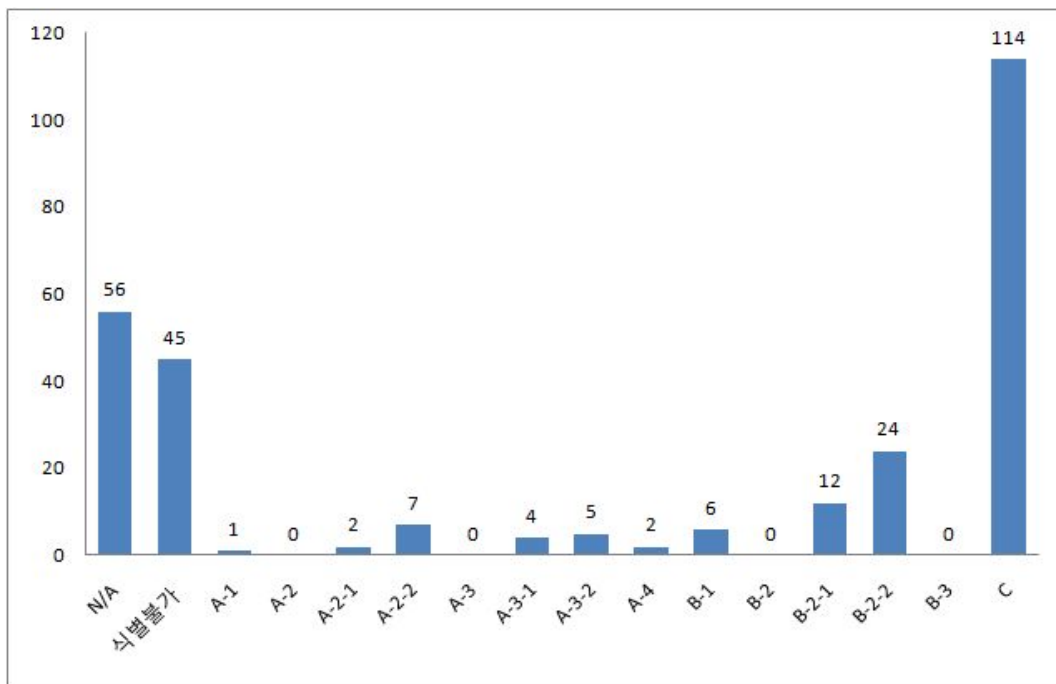


그림 44. 19세기 지도에 나타나는 제주도 위치 및 형태의 유형

표 8. 19세기 지도에서의 제주도 위치 및 형태의 유형

분류	세부 유형	지도 수
N/A	N/A	56
식별불가	식별불가	45
A	A-1	1
	A-2	0
	A-2-1	2
	A-2-2	7
	A-3	0
	A-3-1	4
	A-3-2	5
	A-4	2
B	B-1	6
	B-2	0
	B-2-1	12
	B-2-2	24
	B-3	0
C	C	114
합계		278

19세기에는 서양 고지도에서도 제주가 현대 지도와 비교해 거의 다를 바가 없을 만큼 위치나 형태가 정확하게 나타난다. 18세기에 있었던 풍마와 켈파트 사이에서의 지명 표기 혼란이 사라지고 제주도는 켈파트로 정착하게 된다. 특히 18세기 후반에 있었던 라페루즈의 탐사를 시작으로 19세기에는 영국의 맥스웰과 홀, 벨처 등에 의해서 제주에 대한 본격적인 탐사가 행해짐으로써 19세기 서양 고지도상에서는 지리적 오류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3. 종합 고찰

본 장에서는 서양 고지도에 나타나는 제주의 위치 및 형태 변화를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 지도들을 수차례 살펴본 후 1차 분류를 하고 이를 세분화하여 2차 분류, 또 다시 3차 분류까지 시도하여 이를 유형화 하였다.

이들 유형을 토대로 시대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16세기의 지도는 모두 A형의 지도였으며 세부 유형 또한 모두 A-1 유형이었다. A-1 유형은 제주가 세로로 길쭉하게 표현된 우리나라 남해안에 아주 작고 둥근 섬 하나로 그려져 있으며 지명은 ‘Ladrones’ 계열로 표기되어 있는 매우 부정한 형태이다.

17세기에도 역시 A형이 대다수였다. 세부 유형으로 살펴보면 A-2-1, A-1, A-2-2순으로 많았다. A-2 유형의 지도는 제주가 사선형 혹은 일자형으로 매우 크게 과장되어 그려진다. 즉 제주에 대한 인식은 이전보다 확실하고 명확해졌지만 아직은 지리적 정보가 많이 부족하여 여전히 부정확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다.

18세기에는 B형 지도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세부 유형으로는 B-2-2, A-4, B-2-1순으로 나타났는데, 그 차이는 매우 근소했다. 18세기에 B유형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지명과 관련하여 당시 풍마와 켈파트 사이에서 지리적인 혼동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세기 지도에서는 제주가 현대 지도에 가까운 모습으로 정확하게 그려지는 C유형의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19세기가 되면 제주 해역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량되고 지도에서 정확한 지리 정보를 가지게 됨을 증명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서양 고지도에서 제주는 16세기 후반에는 A-1 유형으로 매우 부정확한 형태로 출현하여 17세기에는 A-1보다는 제주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진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위치 및 형태는 부정확한 A-2 유형으로 표현된다. 18세기가 되면 B형 지도가 주류를 이루며 풍마와 켈파트 사이의 지리적 혼란을 보여주는데, 아직 켈파트가 등장하기 전 풍마 섬만 위치할 때의 A-4형, 켈파트가 등장하면서 풍마와 켈파트가 함께 표현되지만 주변에 불명확한 많은 섬들이 함께 그려지는 B-2-1형, 이 섬들이 사라지고 풍마와 켈파트만 단순히 표현되는 B-2-2형 순으로 점차 정확성을 띠어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세기에 오면 제주에 대한 본격적인 탐사가 행해짐으로써 제주도가 현대 지도에 가깝게 정확하고 상세하게 나타나는 C형 지도가 대부분을 이루며 이제 서양 고지도 상에서 제주도의 위치 및 형태에 대한 지리적 오류를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제주도 위치 및 형태의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그림 4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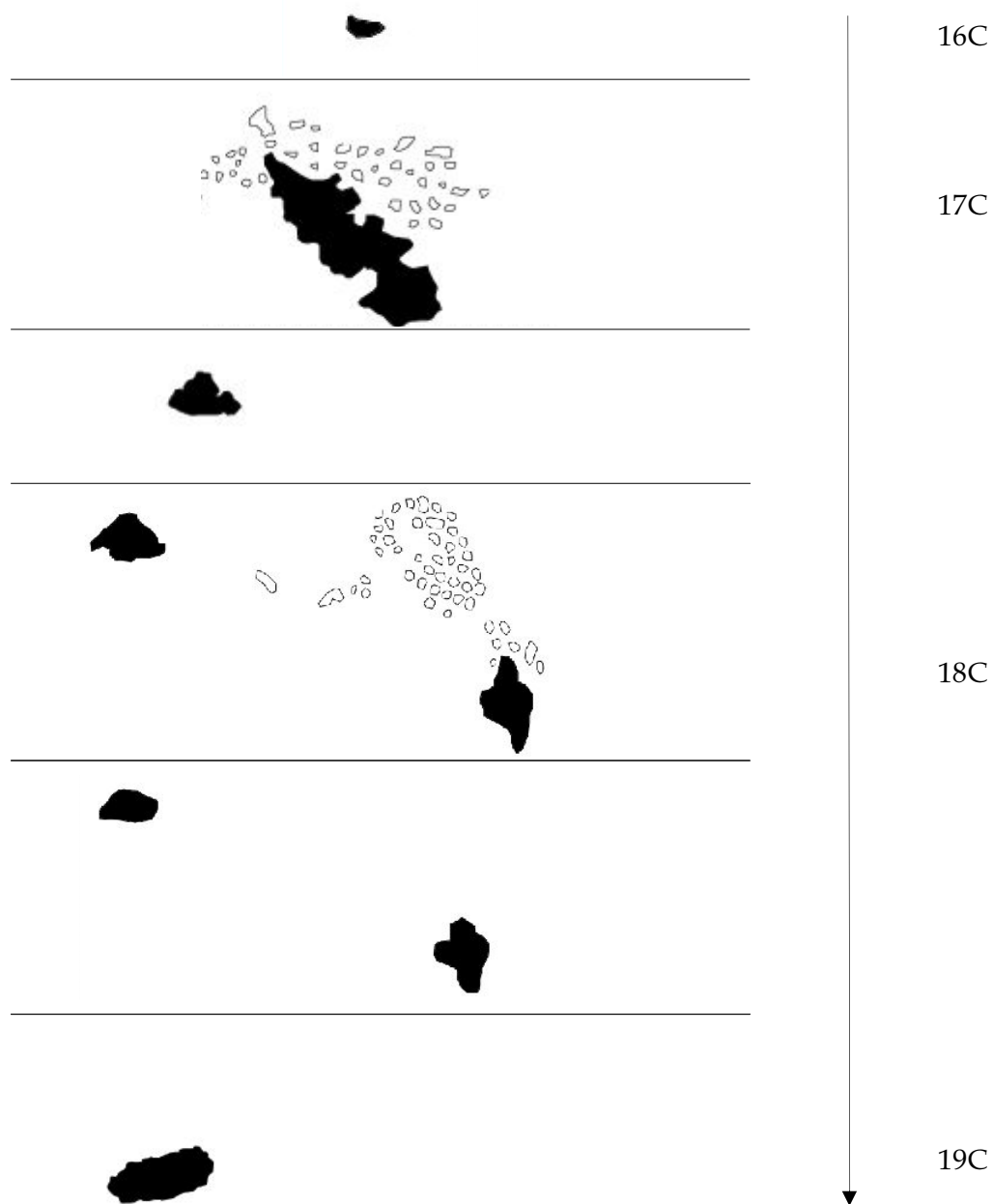


그림 46. 서양 고지도 속에 나타나는 제주의 위치 및 형태 변화 흐름도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파인드코리아(www.findcorea.com) 웹사이트 상의 서양 고지도 총 983점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서양 고지도 속에 나타나는 제주 지명의 시대별 변천 과정을 정리하고 제주의 위치 및 형태 변화를 유형화하여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지도 분석을 행하기에 앞서 서양 고지도 속에 나타나는 제주의 모습과 지명이 변화하는 데 영향을 주었을만한 서양인들과 제주의 특별한 지리적 만남을 찾아보았다. 서양인과 제주의 첫 만남은 네덜란드인 벨테브레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조선인 박연으로 귀화하고, 조선인 여자와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고 조선의 병기 개발과 개량에 커다란 성과를 남기며 완벽한 조선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갔다.

박연의 이야기는 1653년에 제주에 표류한 하멜에 의해서 알려지게 되는데, 하멜은 박연과 같은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소속으로 스페르웨르호를 타고 일본으로 향하던 중 풍랑을 만나 제주에 표착하게 되어 조선에서 약 13년간 생활하였다. 하멜은 귀국 후 조선에서 체류하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기 위해 동인도회사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1668년 이 보고서가 『하멜 표류기』로 편집되어 출판된다. 이 보고서에 담긴 미지의 나라 조선에 대한 이야기는 서양인들의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서양에서 제주가 켈파트로 알려지는 계기가 된다.

1787년에는 프랑스의 라페루즈가 지휘하는 탐험대에 의해 제주 해역 근처

에서 지리적 탐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1816년에는 영국의 맥스웰(Murrey Maxwell)과 홀(B. Hall)도 조선의 서남해안과 제주를 조사하고 해도를 작성하였다. 당시의 항해 기록은 1818년에 『조선 서해 탐사기』로 출간되었다. 그러나 제주를 가장 세밀하고 정확하게 조사한 최초의 서양인은 영국 해군 벨처였다. 그는 1843년 사마랑 호를 이끌고 중국으로 이르는 항로를 탐사한 뒤 귀국 후 『사마랑호 항해기』를 출간하였다. 제주에는 1845년 6월 25일에 도착하여 7월 14일까지 37일 동안 머물렀으며 이 기간 제주도의 해안선을 정밀하게 탐사하고 측량하여 해도를 제작하였다. 현대 지도와 비교하여 다름이 없을 정도로 정확한 최초의 제주전도였다.

제주를 방문했던 서양인 중에서 가장 제주도를 잘 이해했던 사람은 독일의 겐테이다. 겐테는 1901년 조선을 여행하고 <쾰른 신문>에 조선 여행기를 연재하였다. 당시 제주도는 민란으로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었으나 온갖 난관에도 불구하고 서양인으로서 최초로 한라산 등반에 성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라산의 해발고도를 측정하고 백록담의 분화구 지질을 조사하였다. 개방적인 태도와 객관적인 관점으로 서술된 겐테의 여행기는 서양인들에게 잘못 알려진 조선과 제주에 대한 인식을 수정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3장에서는 서양 고지도 속 제주 지명의 시대별 변천 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지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서양 고지도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제주 지명을 유형화하였는데 도둑들의 섬이라는 뜻을 가진 지명은 ‘L형’, 풍마 계열의 지명은 ‘F형’, 켈파트 계열의 지명은 ‘Q형’으로 하였다. 그리고 제주의 주요 지명으로 표기한 경우는 ‘N형’으로 분류하였다. 기타로 하나의 섬에 두 가지 이름이 표기된 경우는 ‘병기형’, 풍마와 켈파트가 서로 다른 별개의 섬으로 인식되어 나타나는 경우는 ‘병존형’이

라 하였다. 간혹 하나의 섬에 두 가지 이름이 표기되고, 제주를 가리키는 또 다른 섬이 있을 경우에는 ‘병존&병기형’으로 분류하였다.

서양 고지도 발달 과정 속에서 제주는 16세기 후반에 등장하여 L형으로 표기되다가 17세기 중반 마르티노의 지도를 계기로 F형 표기로 대체된다. 곧이어 『하멜표류기』 출간으로 제주도가 켈파트로 널리 알려지면서 Q형 표기가 등장하고 18세기 지도에서는 풍마와 켈파트가 서로 다른 섬으로 인식되는 지리적 혼란이 야기되면서 F형과 Q형이 병존한다. 그러나 19세기에 제주가 과학적이고 정확한 방법으로 측량되기 시작하면서 F형은 자취를 감추고 Q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4장에서는 서양 고지도에 나타나는 제주의 위치 및 형태 변화를 알아보았다. 3장에서와 같이 먼저 서양 고지도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제주의 모습을 유형화하였는데 일차적으로 위치의 정확도에 따라 A, B, C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필요에 따라 2차, 3차 분류까지 시도하여 지도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16세기 후반에는 A-1 유형으로 매우 부정확한 형태로 출현하여 17세기에는 A-1보다는 제주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진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위치 및 형태는 부정확한 A-2 유형으로 표현된다. 18세기가 되면 B형 지도가 주류를 이루며 풍마와 켈파트 사이의 지리적 혼란을 보여주는데, 아직 켈파트가 등장하기 전 풍마 섬만 위치할 때의 A-4형, 켈파트가 등장하면서 풍마와 켈파트가 함께 표현되지만 주변에 불명확한 많은 섬들이 함께 그려지는 B-2-1형, 이 섬들이 사라지고 풍마와 켈파트만 단순히 표현되는 B-2-2형으로 점차 정확성을 띠어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세기에 오면 제주에 대한 본격적인 탐사가 행해짐으로써 제주도가 현대 지도에 가깝게 정확하고 상세하게 나타나는 C형 지도가 대부분을 이루며 이제 서양 고

지도 상에서 제주도의 위치 및 형태에 대한 지리적 오류를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서양 고지도에 나타나는 제주의 지명과 위치 및 형태의 변화에 대한 시대별 변천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서양 고지도 발달의 역사 속에서 제주도가 차지했던 비중을 확인하고 서양인이 가지고 있던 제주도에 관한 인식을 가늠해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주도의 역사적 정체성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기초적인 고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파인드코리아 웹사이트 상의 서양 고지도 약 1000점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주요 지도는 물론이고 서양 고지도의 거의 대부분을 분석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연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이렇게 방대한 양의 자료를 살펴봄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모두 제주의 지명 표기 및 유형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던 데 반해 이들 유형을 시대별로 정리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한편 지금껏 행해지지 않았던 제주도의 위치 및 형태를 유형화하여 실증적 분석을 하였고, 위치 및 형태 변화에 대한 시대적 흐름까지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는 점에 이 연구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온라인상의 지도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미지 크기나 해상도의 문제로 좀 더 정확하고 세밀한 분석이 어려웠기에 연구의 한계가 있었음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국의 경우 고지도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정리 작업이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디지털 이미지화해서 누구나 인터넷으로 상세하게 지도를 볼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로 연구하기에 어려움이 없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고지도 관련 자료도 매우 부족하며, 구축된 자료에 대한 현황도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는 실정

이다. 때문에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고지도를 집약하고 이에 대한 조사, 정리 작업이 시급하게 필요함을 절감하였다.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이미지와 지도 자료, 목록을 제공하는 통합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인조실록』
『효종실록』
『현종실록』
『헌종실록』
- 강준식, 1995, 『우리는 코레아의 광대였다』, 웅진출판주식회사.
- 국립제주박물관, 2003, 『항해와 표류의 역사』, 솔출판사.
-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2008, 『ANTIQUÉ MAPS & KOREA』, 경희대학교 출판국.
- 박대현, 2001, 「서양지도에 나타난 제주의 모습과 그 명칭에 관한 연구」, 제주도연구 제19집, 제주학회. pp.119-167.
- _____, 1996, 『서양인이 본 조선 - 조선관계 서양서지』, 호산방.
- 서정철, 2000, 『서양고지도와 한국』, 대원사.
- 오일환 · 김기수, 2004, 「18세기 서양고지도에 나타난 우리나라와 제주도」, 『문화역사지리』 제16권 제1호, 문화역사지리학회. pp. 113-122.
- 이진명, 2005,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삼인.
- B. 홀 지음, 신복룡 · 정성자 역주, 2005, 『조선 서해 탐사기』, 집문당.
- H. 하멜 지음, 신복룡 역주, 2005, 『하멜 표류기』, 집문당.
- 지그리프트 겐테(Siegfried Genthe), 권영경 역, 2007, 『독일인 겐테가 본 신선한 조선, 1901』, 책과함께.
- 파인드코리아웹사이트 <http://www.findcorea.com>
<http://hendrick-hamel.henny-savenije.pe.kr>

ABSTRACT

Jeju Island on Western Old Maps

- Through Western Old Maps on FindCorea Web-site -

Kim, Ji eun

Department of Geography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 s University

Jeju Island, which is recognized very importantly along with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accurately described by degrees with diverse and certain changes in its place name, location and shapes. This study, therefore, aims to establish transition process of various place names of Jeju Island shown in Western old maps and to examine it systematically by segmenting location and changes of shapes in Jeju Island.

In order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this study first examined the special encounter between the West and Jeju Island, which might have an effect on changes of place name, location and shapes in Jeju Island

shown in Western old maps. Then, the researcher analyzed the map by period to identify transition process of place name in Jeju Island and changes of types with 983 of Western old maps on FindCorea web-site(<http://www.findcorea.co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or place names, since Jeju Island first appeared in Western old map in the late 16th century, it had been marked by 'Ladrones' and then, it was replaced by 'Fungma' with the introduction of Martini's map in the mid-17th century. Soon, Jeju Island began to be known as 'Quelpaert' in the West with release of Hendrick Hamel's journal and geographical confusion caused by that 'Fungma' and 'Quelpaert' were recognized to be different Islands in the maps made in 18th century led to coexistence of 'Fungma' and 'Quelpaert'. However, Jeju gradually started to be surveyed with a scientific method and 'Quelpaert' was settled down as an official place name in 19th century when such confusion disappeared.

For location and shapes, A-1 type was typical in the late 16's and Jeju Island appeared in an incorrect shape by an indefinite cognition. In 17th century, it is likely that recognition of Jeju Island became more clear than A-1 types, but it was expressed as A-2 types, which location and shapes are still inaccurate. By 18th century, there was a geographical confusion between 'Fungma' and 'Quelpaert' while B-types map became

the mainstream, but then, the error was gradually removed in order of A-4, B-2-1 and B-2-2 and its accuracy was improved. Starting from the beginning of a full-scale exploration in Jeju Island in 19th century, C-types map that is as accurate as the modern maps held a large majority.

Because this study was conducted focusing on around 1,000 of western old maps, the results could be more reliable and it was possible to periodically arrange the change of place names in Jeju Island that existing studies didn't perform by investigating massive materials. Also this study has significance, because it analyzed the location and shapes of Jeju Island that previous researches didn't attempt.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be used as a fundamental historical research material to understand historical identify of Jeju Island.